

넘내

7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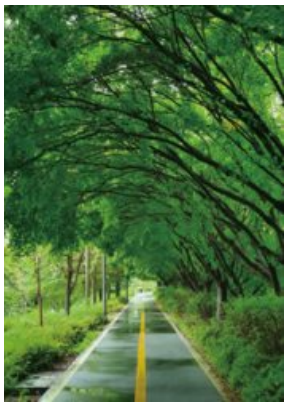
춘천시 시정소식지

Contents

2024년 7월호 JULY 2024

bomnae.chuncheon.go.kr
chuncheon.e
chuncheonsi
chuncheon_go

표지
무념무상
사진 장연애



<제17회 춘천관광사진공모전 입선작>

4 **교육도시 춘천 특집**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10 **춘천은 지금** 강원FC 춘천홈경기 5연승 현장을 가다

14 **봄내 인터뷰** 연극 연출가 겸 배우 장혁우

18 **시정뉴스** 세인트존스대학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외

20 **봄내한컷** 춘천은 밤도 참 예쁘다 외 4건

22 **BOMNAE CULTURE** 이달의 문화생활 소개



04 춘천기계공고 자동차과 학생들

봄내 402호 2024년 7월호 **비매품** **창간일** 1993년 1월 25일 **발행일** 2024년 7월 1일 **발행인** 춘천시 부시장
총괄·운영 춘천시 소통담당관 **기획·취재** 한수지, 한혜진 **디자인** 임윤선 **인쇄** 대성문화출판사 **문의** 250-3229

28 **EDITOR'S PICK** 이달의 책 소개

29 **우리가족이야기** 조은혜 님 이야기 외 5건

30 **봄슐랭가이드** 춘천의 캠핑장에서 뜨거운 여름나기

32 **도란도란** 태권도 도시, 춘천 대표 '시청 여자태권도팀' 외

38 **최돈선의 둘레마을 이야기** 훈장 속의 품걸리를 찾아

42 **앉아서 세계속으로** 발리, 초록으로 그린 수묵화



38 품걸리 마을 모습



44 **의회소식**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48 **봄내골소식** 춘천시 미담 사례 소개

51 **행복나눔 후원릴레이 84호**

52 **알림마당** 생활정보, 행사안내 등

58 **독자와 함께**

59 **만화로 보는 봄내** 강원애니고 2학년 윤하민



시정소식지 '봄내' 우편 구독 신청

읍·면지역은 봄내편집실(250-3229)로 구독 신청, 동 지역 아파트와 단독주택 세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전통은 간직한 채, 새롭게 태어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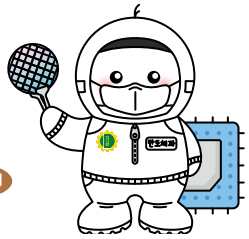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본 지는 올해 1월호 춘천의 특성화고 특집 기사에서 강원생명과학고를 소개했었다. 이어 이번 호에서는 두 번째로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기계공고)를 소개한다. 기계공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목표가 뚜렷하다.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관련 직무의 공무원이 되는 것.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과마다 운영되는 '전공심화동아리'에서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을 하나씩 공부하기도 하고, '공무원·공기업반'에서는 공무원 시험공부를 시작하기도 한다. 기계공고는 도내 직업계고 중 공무원을 최다 배출을 하기도 했고(최근 4년간 21명) 또 실무 감각과 실력이 중요한 만큼 기능장, 기능사와 같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사들이 70% 이상으로 많다.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제자 또는 후배를 위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밖에도 기계공고에는 관련분야 전문병으로 18개월 복무한 후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군특성화'제도도 있다. 또한 학교 건물 전체를 공사하고 있어 2026년 3월부터는 디지털 기반의 교육 공간에서 수업을 듣게 될 예정이다.

지난 6월 13일, 실습수업이 한창인 기계공고의 여섯 과를 찾았다.

글 한혜진 사진 이경하

지난 4월 공개된 춘천기계공고 마스코트 '춘공이'. 산업설비과 3학년 심민성 학생이 교내 공모전을 통해 제작했다.



반도체과 NEW

2025년 반도체과가 신설된다. 강원도에서는 최초다. '미래의 쌀', '새로운 석유'라 불릴 만큼 반도체산업은 중요한 미래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기계공고에서도 도 교육청, 도청, 시청, 강원대학교 반도체과, 강원테크노파크 등 여러 공공기관과 논의하고 협약을 맺어 반도체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는 반도체과에서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고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이 주를 이루게 될 예정이다. 반도체과 신설 담당 이장권 교사는 "반도체를 이론적으로만 접하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는 클린룸을 만들어 웨이퍼 회로 패턴 공정과 제작, 반도체 소재 가공 등을 실습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도체과를 필두로 6개 학과에서 다양한 기술 인력이 계속 양성될 예정이다.



미래산업에 도전하고 싶다면

인력양성 반도체장비기술자, 반도체장비 기구조립원, 반도체장비 고객 지원기술자
운영교과 반도체기초기술, 반도체장비, 반도체제조 등
취득자격 반도체설비보전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등
취업분야 반도체제조 회사, 반도체장비 유지보수 회사, 반도체장비 제조회사, 반도체 소재 가공회사





자동차과

3학년 강성민 군은 어릴 때부터 자동차 수리에 관심이 많았다. "아버지도 자동차 정비 일을 하세요. 저도 꿈이 명확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로를 정하고 기계공고에 입학했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들어보니 열심히만 하면 원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지방경기대회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어요. 지난 달에는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에 합격해 만트럭버스코리아의 취업이 확정됐답니다. 아버지께서도 기뻐해 주셔서 뿌듯했습니다. 제가 대형 트럭에도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도 관련된 자격증을 여러개 따고 싶어요." 성민 군은 실습이 시작되는 9월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 준비로 바쁠 예정이다.

자동차과는 전기, 전자 및 기계에 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자동차의 장치별 구조와 특성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정비기술을 습득한다. 또 자동차산업기술의 성장에 맞춰 미래 지향적인 전문 기술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아우스빌둥:
독일 직업교육의 핵심인 동시에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독일식 이원 직업교육시스템

자동차 전문가, 나야 나 ♪

운영교과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차기관, 자동차엔진정비, 기계일반 등
취업분야 자동차 정비 업체, 자동차 관련 제조업, 공무원 및 공기업
취득자격 자동차정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인력양성유형 자동차정비원, 건설기계운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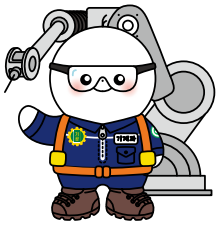


졸업생 한마디

저는 우리 학교 자동차과가 비전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어요. 학교생활 하면서 자동차정비기능사 취득에 가장 많이 공을 들였는데, 실습장이나 실습장비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급식도 맛있었고요. 우리학교 아우스빌둥 '1호' 합격자로서 트레이니로 3년간의 커리큘럼을 모두 이수하고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요. 현재 BMW KOREA에서 운영하는 정비 레벨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어요. 자동차과 후배들을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장현휘 자동차과 2020년 졸업
BMW 한독모터스 수원서비스센터 근무



기계과

기계과에서는 3D모델링, 기계설계, 기계가공 등 기계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능력을 학습한다.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최신 기자재들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직무들을 학교에서 직접 배울 수도 있다. 기계과는 전문대학 수준의 산업기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여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100% 합격,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학과 내 2개의 전공심화동아리 운영을 통해 6년 연속 대기업에 취직, 최근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 입상자를 최근 2명이나 배출했다. 기계과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기계 계열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2학년 때부터 원하는 기업과 학교에서 실무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졸업 후에는 한국기술교육대, 한국공학대 등 합격 1순위로 연계되어 학비 없이 4년제, 2년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혜택도 있다. 3학년 김현웅 군은 "처음엔 꿈이 없이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수업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도제반에도 들어가고 설계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저는 취업이 결정되어 현장에서 두 달간 실습을 했고, 다시 9월에 실습하러 회사로 가는데요. 학교에서 배우던 걸 실제로 일 해보니 신기했어요. 그리고 거기 직원분에게 제가 잘하는 기술을 알려드리기도 했어요. 엄청 뿌듯했답니다. 부모님도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 주고 계세요"라고 말했다.

* **도제학교**:
독일과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도제교육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학교에서는 이론교육을, 기업에서는 심화실습을 연계한 새로운 교육제도





졸업생 한마디

저는 재학생 시절,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해 삼성 SDI의 입사 지원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은 소형전지 사업부 극판기술그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급은 350+@이고 승진을 위한 자격증 공부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다독여 주신 덕에 대기업 취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손준영 기계과 2023년 졸업, **삼성 SDI** 근무

평생 써먹는 기술, 기계과에서 배워볼텐가

인력양성 기계캐드원, 머시닝센터 조작원, CNC선반 조작원, 기계설계원
운영교과 기계요소설계, 전자기계이론, 컴퓨터활용생산
취득자격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금형기능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등
취업 분야 2차전지장비 부품 제조업체, 반도체장비 부품 제조업체, 공무원 및 공기업, 대기업 등 제조회사



전기과

국가 기간 산업인 전기산업분야에 입문하게 되면 전력발전, 자동화 분야에 근무하게 된다. 최근 탄소발생을 억제하는 클린 산업분야가 각광받는 만큼 전기자동차, 전기배터리 분야에 종사할 수도 있다. 3학년 최재호 군은 전교 학생부회장이면서 많은 자격증을 보유한 인싸다. 승강기기능사, 전기기능사, 지게차기능사, 공유압기능사 등 총 7개를 취득한 상태다.

"입학 전, 학교 홈페이지에서 전기 배선 사진을 봤는데 멋있어 보여서 들어오게 됐어요. 직접 수업을 받아보니 더 재밌더라고요. 자격증 시험 때문에 다른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건데, 우리학교 만큼 실습 장비가 좋은 곳이 없더라고요. 혼자 밤늦게 학교에 남아도 선생님들도 함께 남아서 시험 준비를 옆에서 잘 도와주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재호 군은 올해 3월 취업이 결정돼서 10월에 실습을 나가고 내년 1월부턴 정규직이 된다. "이미 취업은 확정됐지만, 대회 준비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전국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를 준비 중인데 기분 좋게 우승하고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전기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인력양성 내선 전기공, 전기 전자설비조작원, 철도신호제어시공 작업원

운영교과 내선공사, 자동제어시스템운영, 철도신호제어시공 등

취득자격 전기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능사 등

취업 분야 전자기기 및 부품 제조업체, 전기공사업체, 철도공사시공 및 신호용품 제조업체, 공무원 및 공기업 등

졸업생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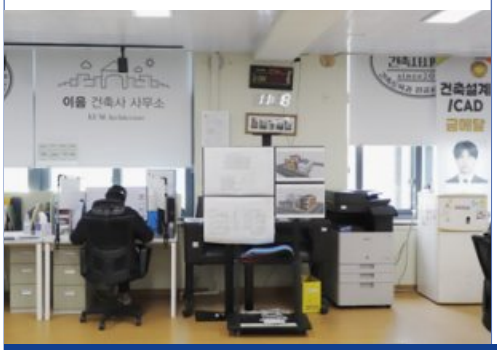
학교에서 기업 정보를 얻고, 견학이나 엑스포 참관을 통해서 시야를 넓힐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입사 준비할 때는 선생님들이 신경 써서 회사의 최근 이슈와 공개 채용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셨어요. 면접 때도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실전과 같은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함께 답변을 만들었었는데 어렵지만 재미있었어요. 여러분도 불가능할 것 같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민용기 전기과 2020년 졸업
한국전력공사 근무









건축토목과

건축토목과는 CAD프로그램을 활용한 도면 작성과 건축설계사 체험, 측량 실습, 건설재료시험 등의 측량(토목)기사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건축, 토목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교육청 지원을 받아 건축토목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건축 설계 사무소처럼 꾸몄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좋아 건축토목과에 입학한 2학년 김승민 군은 "건축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1학년 때 전공심화동아리에 들어왔어요. 도면 보고 캐드로 그리는 게 재밌어요. 얼마 전에는 지방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 지금은 콘크리트 기능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졸업 후에는 건축사 사무소에 취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건축에 관한 모든 것

인력양성 기준점 측량 실무자, 건축설계 기술자, 실내장식 디자이너

운영교과 건축설계, 토목일반, 측량

취득자격 콘크리트기능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측량기능사, 지적기능사 등

취업 분야 공무원 및 공기업(수자원공사, 도로공사, LH공사, LX공사, 국립지리정보원), 측량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감리회사 등

졸업생 한마디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바이오의약품 제조 시설인 클린 룸에 필요한 공조설비와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에 필요한 유틸리티를 유지관리,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기계공고에서의 생활이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전공심화동아리 생활은 입사 후 회사 적응과 업무 진행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김경호 건축토목과 2023년 졸업
삼성 바이오로직스 근무



산업설비과

산업설비과에서는 용접 기술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용접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실습수업을 한다. 전국 특성화고 중 유일하게 CAD 프로그램을 활용한 레이저 커팅기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3학년 심민성 군과 오세윤 군은 같은 회사에 이미 취업한 상태였다. 심민성 군은 "5월에 여러 군데 면접 보고 세 군데 합격했어요. 그중 조건이 가장 괜찮은 곳으로 골랐답니다. 10월에 현장실습 나가는데 자격증만 따면 현장실습 후 정식으로 일하게 돼요"라며 용접이 가장 재밌다고 말했다. 오세윤 군은 "중학생 때부터 용접에 관심 있어서 이 학교로 오게 됐는데 직접 해보니 적성에도 잘 맞았어요. 우리학교는 자격증 따기 좋은 조건이에요. 실습 환경이 좋거든요"라고 뿌듯하게 말했다.

기계공고를 졸업해 모교에 교사가 되어 돌아온 염태훈 교사는 기계공고에서 자격증이 가장 많은 사람이다. "어느 날 학생이 '선생님은 자격증 몇 개예요?'라고 물어봤는데 그땐 학생 때 취득한 자격증이 전부였어요. 이후 하나씩 공부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1학년 애들이 들어오면 자격증 수첩부터 보여줘요. 그러면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







용접, 배관을 내 손으로 마스터하고 싶다면

인력양성 용접원, 배관공
운영교과 배관시공, 피복아크용접 및 특수용접
취득자격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배관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등
취업 분야 용접 및 특수용접업체, 배관 설계 및 시공업체, 공무원 및 공기업, 군부사관 등

졸업생 한마디

저는 기계공고에 들어와서 특성화고의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에 대해 알게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전공심화동아리에 들어간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전공심화동아리에서 기능경기를 준비했고, 입상하면서 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대표로 선발돼 국제기능대회에서 메달을 따서 학교를 빛내고 싶습니다.



김종우 산업설비과 2020년 졸업
현대중공업 근무

강원FC 돌풍 속으로

춘천홈경기 5연승 현장을 가다

강원FC의 상승세가 무섭다. 2024년 시즌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32개의 골을 넣으며 리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6경기 무패 행진에 7년 만에 5연승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에 춘천시의 다양한 지원, 춘천시민의 뜨거운 응원이 더해진 결과다. 엄청난 화력을 내뿜고 있는 강원FC의 원동력을 찾고자 홈구장인 송암스포츠타운를 찾았다.

글 한수지　사진 윤현, 강원FC 제공





6월15일 춘천에서 마지막 홈경기 날

강원FC와 수원FC의 경기가 열리는 지난 15일 오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은 시민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가족과 함께 경기장을 찾은 김영환(42)씨는 "최근 축구 팬들이 늘어난 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역연고팀을 응원하고 싶은 시민들의 열망이 깨어난 것"이라며 "춘천에 프로 축구팀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문화적 혜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축구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기장 곳곳에는 오렌지 빛깔 강원FC 유니폼을 입고 한 손에는 응원 머플러와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가득했다. 엄마·아빠 손을 잡고 경기장에 온 유치원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나이의 시민이 경기장을 찾았다. 경기장 밖에선 댄스공연과 마임공연 등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였다. 감자아일랜드를 비롯한 7개 푸드트럭 앞은 길게 줄 선 사람들로 가득했다.

경기 시작 전 이광연, 이상헌, 황문기, 양민혁 등 강원FC 주전 선수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1만 명의 시민 팬들은 경기 내내 목이 터져라 강원FC를 응원했다. 서포터즈 '나르샤'가 승리의 구호 "필~승 강원"을 선창하면 시민들이 떼창으로 응답했다.

전반 12분 왼쪽 날개 유인수가 오른발 선제골을 넣자 분위기는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응원 메아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원정석 옆에서 시작된 파도타기는 경기장을 세 바퀴나 돌고 나서야 멈췄다. 춘천 시민들은 축구경기를 축제처럼 함께 즐겼다.

강원FC는 1대1로 맞선 후반 10분 야고가 결승 골을 터뜨린 데 이어 10분 뒤 양민혁의 오른발 쐐기 포가 골망을 가르면서 수원FC에게 3대 1 승리를 거뒀다.



조직력, 사무국, 서포터즈, 시민의 4박자

강원FC는 한 시즌 만에 완전히 다른 팀이 됐다. 지난해 K리그1에서 강등권 싸움을 펼쳤던 강원은 올 시즌 약점으로 지적됐던 공격력을 강화하며 선두권 경쟁을 벌이는 팀으로 변신했다. 상승세 중심에는 윤정환 감독이 있다. 윤 감독은 지난 시즌 도중 부임해 1부에 잔류시켰다. 이번 시즌 초반부터 달라진 공격 축구로 상승세를 이끌며 팬심까지 사로잡았다. 잠재력 있는 선수 발굴 등 강원FC사무국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춘천시도 시장을 필두로 2024시즌 강원FC 시즌권 구매, 기부 릴레이를 펼치는 등 축구 붐에 불을 지폈다. 서포터즈 나르샤와 원정석 228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을 채운 시민 팬도 강원FC 활약의 일등공신이다. 이현용 강원FC 커뮤니케이션팀 과장은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PO)에서 어렵게 잔류했는데 올 시즌은 좋은 성적을 거둬 팬들께서 경기장에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다"라며 "스포츠는 시민들을 묶어주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성원해준 춘천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프런트는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FC 춘천홈경기는 3월31일 유료 관중 집계 이후 처음으로 만원 관중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도 홈 관중석이 전석 매진됐다. 수많은 관중이 송암에 모였지만 지금까지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민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관내 유관기관·단체 덕분이다.

춘천시는 시내버스업체인 춘천시민버스와의 협업을 통해 매 경기 16번 버스를 4대 증차해 대중교통 수요를 책임졌다. 춘천경찰서, 춘천시자율방범연합대, 모범운전자회 춘천지부는 관중 질서유지, 주요 교차로 차량 통제를 위해 인력을 지원했다. 지난 15일 수천 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몰리는 상황에서 이들의 활약은 더욱 빛났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에서 축구가 스포츠를 넘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원FC와 관람객들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월 15일 수원FC전에 관람온 김영환 씨 가족





3월 31일 강원FC와 FC서울 경기에 깜짝 방문한 방탄소년단 뷔(본명 김태형)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 양민혁 선수

K리그에 새 바람을 일으킨 샛별 양민혁

돌풍의 중심에는 고등학교 3학년 '슈퍼루키' 양민혁이 있다. 양민혁은 준프로계약을 맺고 프로에 데뷔해 K리그1 무대를 누비고 있다. 그는 학업과 축구를 병행하며 17라운드 현재까지 모든 경기를 소화했다. 양민혁은 지난 4월과 5월 연맹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연속 수상해 리그 전체가 주목하는 선수로 발돋움했다. 윤 감독은 "가면 갈수록 정말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 득점을 터뜨려 기특하게 생각한다"며 극찬했다. 지난 18일 강원FC는 구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양민혁의 프로 계약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입단 6개월 만에 정식 프로선수가 된 것이다. 그의 실력과 공헌도를 인정한 강원이 6개월 빨리 프로 자격을 안긴 셈이다. 양민혁은 시즌 내내 뜨거운 성원을 보낸 춘천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5연승을 달성한 것은 춘천 시민분들의 응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올해 춘천에서의 경기는 끝났지만, 강릉에 오셔서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올 시즌 춘천 홈경기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강원은 이제 무대를 강릉으로 옮긴다. 강원의 기세가 춘천을 넘어 강릉에서 이어지기를 바란다.Ⓑ



지역 연고팀을 응원하는 즐거움

오늘, 연극 보러 갈래?

TICKET

no 305255632



장 혁 우

연극 연출가 겸 배우. 1982년 춘천 출신. 강원고등학교 연극부를 시작으로 연극인생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청소년 극단 무하를 만들고 강원대학교 후문에 소극장을 만들기도 했다. 연극 「은밀한 연애(연극 바보들)」, 「브릴리언트」, 「썸데이」의 각본을 쓰고 연출했다.

춘천에 없던 말 '오늘 연극 보러 갈래?'를 만들기 위해 25년째 한길을 파는 사람이 있다. 연극 연출가 겸 배우 장혁우 씨다. 무대에서는 연기를 하고 무대 밖에서는 극의 대본을 쓰고 직접 연출도 하며 춘천과 서울 대학로를 오고 간 지는 5년째. 그 결실로 강원대학교 후문에는 소극장 '연극바보들'을, 대학로에는 소극장 '무하아트센터'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연극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의 삶을 들여다봤다.

글 한혜진　사진 이경하, 장혁우 제공



장혁우 씨가 연기 지도하는 모습

방황했더니 주인공?!

청소년 장혁우는 또래처럼 연애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연애편지도 곧잘 썼다. 친구 대신 쓴 연애편지의 성공률이 높아지자 글 쓰는 것에 흥미가 생겼고, 강원고등학교 1학년이 된 장 씨는 문예부에 들어가려고 마음먹었다. 문예부에 들어가려면 창작 시 5편을 제출해야 해서 몇 날 며칠 고심하며 시를 썼고, 드디어 합격을 통보받았다.

"합격 통보를 받은 날, 학교 복도를 지나는데 3학년 선배가 저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너 동아리 뭐야, 오늘부터 연극부 들어와' 하더라고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무서운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연극부였는데 그게 제 삶을 바꿔놓을 줄 몰랐죠."

얼떨결에 들어간 연극부에서 첫 대본을 손에 쥐자마자 대본을 하루 만에 외우며 연극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연극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다른 학교 연극부와도 활발히 교류하며 졸업할 때까지 열 개가 넘는 다작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전문 배우가 되는 방법을 몰랐다. 정보가 부족했고, 부모님도 반대했다. 그렇게 대학 진학에 실패한 그는 방황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군대로, 한 번은 원치 않았던 대학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게임과 술로 절여진 방황 속에 어느덧 28살이 되었다.

"아직도 기억나요. 28살 10월이었어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돈을 대신 내줘서 여러 명이 제주도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 진짜 돈이 없어서 연극 못 해본 적 있어?' 여기에 뒤통수가 띵 했죠. 그동안 내가 돈이 없어서 꿈을 못 이룬다고 말했던 건 핑계였구나. 정신 차리고 춘천으로 돌아와서 극단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장혁우 씨는 여러 극단에 무작정 전화해 배우를 하고 싶다며 오디션을 보러다녔다. 그렇게 2009년, '문화프로덕션 도모'라는 극단에 들어갔다. 첫 작품 연습을 시작했지만, 베테랑 배우들이 주로 무대에 섰다. 혁우 씨는 신인이었기 때문에 연습은 하되 무대에 오를 일은 거의 없는 일명 '만년 대기' 조였다. 그러다 공연 며칠 전, 주인공 역의 선배가 일 때문에 연습에 참여 못 하는 일이 생겼다. 공백을 메꾸려 연습 무대에 올랐다가, 대본을 완벽히 외워 열정적으로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 이게 실제 공연에서도 주인공 자리를 거머쥐게 된 계기가 됐다. 이후 그는 3년 내내 다양한 작품에서 주인공을 맡게 된다.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소극장 무하아트센터 외관과 내부 모습

나에겐 동료가 필요해, 너희에겐 버팀목이 필요해

극단에 들어간 장혁우 씨는 물 만난 고기처럼 역량을 펼쳐 나갔다. 공연을 위해 매일 15시간씩 연습하면서 온 신경을 연극에 몰두하면서 보냈다.

"하루는 강원연극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연습실에 고등학생이 한 명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연습하느라 정신없으니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런데 일주일 넘게 있길래 왜 있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연극영화과에 가고 싶은데 배울 데도 없고 방법을 모르겠어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머리가 띵 울렸죠. 10년 전 제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요."

연습실에서 구경하던 아이에게 물어보니 이런 친구들이 꽤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장 씨는 작은 단체를 만들어 무료로 연기 지도를 하게 된다. 2012년, 청소년 극단 무하의 탄생이다. 1년에 10명씩 뽑아 운영했다. '무하'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며 공연을 하러 다녔다. 무하가 6년 차 되던 해 돌아보니 무하 졸업생이 63명인데 그중 33명이 연극 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일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장 씨는 그동안 노력한 것들이 거품이 되지 않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예술 분야 종사자가 지속성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2019년, 그는 '내 동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후배들의 '버팀목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무하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다. 공연만 하던 단체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회사를 만든 것이다. 이후 무하의 지속성을 위해 강원대학교 후문에 연극을 상시 볼 수 있는 소극장을 만들었다. 소극장 '연극 바보들'은 문을 연 지 4개월 반 만에 유료 관객이 1만 명을 넘겼고, 연달아 180회 공연을 치르면서 승승장구하게 된다.





강원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소극장 연극바보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건 과정 중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관객이 사라졌다. 춘천에서 극장을 만들고 연속 공연을 올리면서 달콤한 성공을 맛봤기에 가만있을 수 없었다. 장 씨는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도전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공연을 서울로 역수출 해보자는 생각을 했고, 대학로로 가 극장을 빌리고 배우를 모집했다. 직접 만든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매일 뛰어다녔다. 오히려 코로나로 실력 있는 배우들로 팀을 꾸릴 수 있었고 음악극 「브릴리언트」, 연극 「춘천놈들」, 뮤지컬 「썸데이」가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면서 서울에서 입지를 다지게 됐고 연출가로서의 그의 가치도 높아지게 됐다.

"코로나 시기에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하나의 공연을 준비하고 마칠 때까지 몇 달 치의 극장을 임대하는데, 임대료도 많이 나가고 세트를 부수고 새로 만드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저희만의 전용 극장이 있어야겠더라고요. 빈 상가를 임대해서 우리 전용관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준비해서 올해 3월 대학로에 문을 연 게 무하 아트센터예요."

서울에서 자신감을 얻은 장 씨는 문득, 고향도 춘천이고 예술 분야 지인도 춘천에 많아 이제는 춘천에서 오픈런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잠시 쉬고 있던 소극장 '연극 바보들'이 올해 6월 재가동을 시작했다.

"춘천에서 오픈런은 아마 최초일 거예요. 오픈런은 일단 공연을 시작하면 종료 기한 없이 무기한으로 공연하는 걸 뜻해요. 저희가 공연을 중단하지 않는 한, 붙여뒀던 공연 홍보 포스터를 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일단 지금은 주말 공연만 있는데요. 반응을 보고 조금씩 늘려 나가고 싶어요. 춘천에서도 아무 때나 '우리 심심한데 연극이나 보러 갈까?' 했을 때 저희가 그 빈자리를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혁우 씨는 방황도 오래하고 새로운 길을 만드느라 외로운 길을 걸으면서도, 태어나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과정 중에 있다고. 언젠가 성공할 거라고.Ⓑ

소극장 연극바보들

주소 서부대성로239번길 7

문의 010-5023-3315

TICKET

0 305255632

춘천여고 등 세인트존스대학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5월 27일 세인트존스대학 총장단 환영식 및 업무협약



올해부터 춘천여고와 전인고교, 효제초교에서 세인트존스대학의 고전 교육 모델이 도입된다. 지난 5월 27일 시청 중앙정원에서 세인트존스대학의 그레이트북스(GB) 토의식 세미나 교육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세인트존스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된 지역 내 학교와 토론 중심 인문 교양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과 기관 간 교육 기회 확대에 협력하기로 상호 약속했다. 세인트존스대학은 미국에 2개 캠퍼스를 두고, 전공 구분 없이 4년간 100권의 고전을 읽고 공부해야 졸업할 수 있는 그레이트북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졸업생 박사학위 취득률이 미국 전체 상위 2%에 달하며 졸업생들은 법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스카우트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세인트존스대학의 그레이트북스 프로그램은 고전 명저를 읽고 주제, 내용에 대해 고민하고 교수진과 함께 토론하는 수업 방식으로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 협업 능력 향상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에 따라 세인트존스대학의 검증된 고전교육 모델을 도입해 우리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에 앞서 지난 26일에 춘천시립도서관에서 개최한 시범세미나에는 4개 분야(아동·청소년·시민·영어) 1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도시과 ☎250-3216**

춘천ICT벤처센터 준공…기업 성장 발판 기대

지하 1층~지상 5층, 70개의 입주 공간 조성



도내 최초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인 춘천ICT벤처센터가 마침내 문을 연다. 이 사업은 춘천ICT벤처센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국비 160억 원, 도비 35억 원, 시비 150억 원 등 총사업비 345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4년 4월 준공됐다. 춘천 ICT기업 육성과 성장의 거점으로 우뚝 설 춘천ICT벤처센터는 전체 면적 1만 2,850㎡의 건축물이며 저렴한 임대료의 입주 공간 70실과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규모별 회의실과 다목적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센터 운영은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하며 현재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 선정 과정에 있다. **전략산업과 ☎250-4157**

춘천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성과

산불 0건·영농부산물 147톤 파쇄,산불 방지 총력 대응



춘천시가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발생 '0건'을 달성했다. 이 기간 시는 산불 진화 및 감시 인력 182명을 투입했으며 임차헬기 1대와 진화차량 7개를 운영했고, 무인감시카메라 12대를 통해 산불 예방에 힘썼다. 특히, 청명·한식 기간에는 본청 및 사업소 직원 총 800여명을 읍면 산불 취약지에 배치해 산불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자체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소각 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도 했다.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성과도 뚜렷했다. 예전에는 농업인이 직접 영농부산물을 소각해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 발생 위험이 있었지만, 시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파쇄지원단을 운영, 147톤에 달하는 영농부산물을 파쇄했다. **산림과 ☎250-4358**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개관

체육시설,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돌봄센터 등 생활 복합 시설



복합문화체육시설인 춘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마침내 문을 연다. 춘천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우두동 293-1번지 일대에서 춘천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했으며, 국비 등 총 241억 4,000만 원이 투입됐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육시설로 전체 면적 7,118㎡,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주요 시설은 수영장, 컬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보치아·농구장·탁구),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다. 체육시설은 물론 도서관과 문화센터, 돌봄센터까지 구축한 생활 복합 시설이다. 시설 명칭인 '반다비'는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장애인 우선 사용 체육시설에 붙여진다. 춘천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며, 개관식 이후 17일부터 9월까지는 무료로 개방한다. **체육과** ☎250-3502

오봉산 청평사 오층석탑~정상 계단 방향 임시 폐쇄

2026년 3월 31일까지 숲길 정비 사업 실시로 일부 등산로 폐쇄



춘천시가 2026년 3월 31일까지 오봉산 청평사 오층석탑~정상 계단 방향 등산로를 임시 폐쇄한다. 해당 구간은 지속적으로 토사가 쓸려 사면이 유실되고 있으며, 낙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이다. 현재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진행하던 오봉산 숲길 정비사업으로는 전체적인 사면 안전 보완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사면 안정성 확보을 위하여 등산로를 폐쇄하고, 폐쇄 기간동안 보완 정비사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폐쇄 기간동안 등산객들은 배후령 – 오봉산 정상~홈통바위 – 천단 구간을 이용하면 된다. 또는 청평사 – 이자현 세수터, 오층석탑 등 유적지에서 원점으로 돌아와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용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숲길 정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산림과 ☎250-4289

2024 스포츠강좌이용권 수시 접수

지금 바로 접수하세요



춘천시가 2024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수시 접수를 통해 전국 동시 접수기간을 놓친, 경제적 사정으로 스포츠활동 참여가 어려웠던 유·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5~18세(2006~2019년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 마련된 복지사업으로, 올해부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1인당 월 9만 5천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금을 증액하였다. 신청 희망자는 기한 내에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main.do)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하거나 신청자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정자에게는 바우처카드가 발급되어 태권도, 수영, 헬스 등 20여 개 종목, 100여 개소 가맹시설에서 원하는 강좌를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결제하여 수강할 수 있다(현장 결제 불가).

체육과 ☎250-4479

Photo
포토 갤러리







춘천의 풍경을 보내주세요

봄내한컷







1 춘천은 밤도 참 예쁘다 시민 원순재
2 서면에서 본 중도 시민 김진희
3 해지는 석사천 시민 허남국
4 싱그러운 석사천의 봄 시민 김정유
5 멋진 블랙이글스 비행 모습 시민 류덕식

BOMNAE CULTURE

강원·춘천 2024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축제

이번 축제에서는 춘천마임축제, 춘천인형극제, 춘천연극제와 협업하여 춘천의 문화와 한국 전통 예술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축제에는 세계 60여개국에서 온 선수들이 참여하며,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 일대에서 태권도 문화와 K-컬처를 세계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춘천국제레저대회와 협력하여 시민참여프로그램인 '의암호수욕장' 딥워터솔로잉대회를 개최하고 춘천청년소상공인협회와 연계해 푸드트럭,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즐길 수 있는 '송암썸머페스티벌'도 진행합니다. 주말에는 K-POP 랜덤댄스플레이, 길거리 노래방 등이 열려 청소년들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2024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축제

이 대회는 2000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유서 깊은 대회입니다. 겨루기, 품새, 격파의 3개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약 60여 개국 2,6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올림픽 출전 랭킹포인트(G2, 20점)를 획득할 수 있어 선수들의 관심이 높은 대회입니다.



2024 세계태권도문화축제

- **<춘천 2024 세계 태권도월드컵 팀 챔피언십 시리즈>** 7.1.(월)~3.(수) 3일간 / 에어돔 / 내용: 겨루기 5인조 단체전, 겨루기 2인조 경기, 겨루기 개인 경기
- **<2024 춘천 KTA 파워태권도 & 다이내믹태권도>** 7.1.(월)~3.(수) 3일간 / 에어돔
- **<세계태권도시범경연&격파대회>** 7.4.(목) / 에어돔 / 내용: 팀경연(프리스타일), 단체전(종합격파), 개인전(기술격파)
- **<세계장애인태권도오픈챌린지 G4>** 7.5.(금) / 에어돔 / 내용: 겨루기 개인 경기(남/녀 각 5체급)
- **<문화축제 오픈·서브대회>** 7.6.(토)~7.(일) 2일간 / 에어돔 / 내용: 팀 대항 종합 경연, 개인 종합 격파, 3인조 단체 겨루기
- **<2024 KTA 버츄얼 태권도 챌린지 시리즈 4>** 7.6.(토) ~ 7.7.(일) 2일간 / 송암스포츠타운 실내테니스장 / 내용: VR 장비를 이용한 가상 겨루기
-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 7.6.(토) ~ 7.7.(일) 2일간 / 송암스포츠타운 실내테니스장 / 내용: KTA 교육 콘텐츠 부스, 산업전 부스 등

2024 춘천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G2대회] 7.10.(수)~7.12(금) 겨루기, 품새 / [오픈대회] 2024. 7. 13.(토)~7. 14.(일) 겨루기, 품새, 격파

기간 강원·춘천 2024 세계태권도문화축제 7.1.(월)~7.(일) / 2024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7.10.(수)~14.(일) **장소**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 **문의** 245-5683

BOMNAE CULTURE

2024 춘천연극제: 코미디경연

축제

전국 공모로 107편이 접수되어 단 7편의 작품만이 무대에 올려지는 '코미디경연'

- <**어쩌다 외계인**> 극단 어드벤쳐 프로젝트
  7.8(월) 16:30 19:30
- <**홀연했던 사나이**> 극단 프로젝트 해동머리
  7.10(수) 16:30 19:30
- <**하이타이**> 극단 도시락
  7.12(금) 16:30 19:30
- <**얼음땡**> 극단 달팽이 주파수
  7.14(일) 16:30 19:30
- <**배심원들_Renewal**> 극단 경험과 상상
  7.16(화) 16:30 19:30
- <**썸데이**> 사회적협동조합 무하
  7.18(목) 16:30 19:30
- <**동백꽃 피어나는 어느 봄날에**> 극단 달나라 로켓펀치 7.20(토) 15:30 18:30

기간 프로그램별 상이
장소 봄내극장 **문의** 241-4345

2024 춘천연극제: 초청공연

축제

신라시대부터 천년이 넘게 이어져 내려오던 강릉의 설화 '연하와 무월랑'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뮤지컬 <월화전>이 찾아옵니다.



기간 7.27.(토) 15:00 **문의** 241-4345
장소 봄내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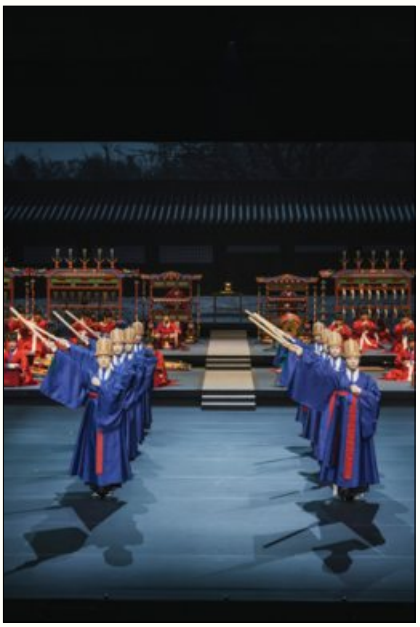
춘천시립합창단 제119회 정기연주회 <합창으로 듣는 재즈와 영화음악>

공연

합창과 재즈, 그리고 영화음악의 조화로운 교차점에서 탄생한 춘천시립합창단의 새로운 공연, 제119회 정기연주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월 뜨거운 여름, 정열이 넘치는 계절과 어울리는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적 대화의 장을 만나보세요.

- 관람연령: 7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관람)
- 관람료: 일반석1만원, 사이드석 3천원
  (춘천시민 30%, 학생 및 경로 50% 할인 등)

기간 7.11.(목) 19:30 **문의** 259-5874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공연

종묘제례악은 세종대왕이 직접 작곡하여 조선왕조 500년 동안 국가 최고의례인 종묘제례에서 연주되었던 곡으로 600여 년간 올곧게 전승되면서 현재는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김영운 前국립국악원장의 직접 해설과 함께하는 이번 종묘제례악 공연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함께합니다.

- 관람연령: 7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관람)
- 관람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1천원

일시 7.26.(금) 19:30 **문의** 259-5822, 4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BOMNAE CULTURE



2024 춘천예술문화축제 제11회 <한여름 밤의 아리아>

공연

호수와 아리아가 어우러져 마치 이탈리아의 무대를 춘천으로 옮겨 온 듯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춘천의 대표적 클래식 공연인 '한여름 밤의 아리아'가 7월 여름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여름 밤의 아리아'는 2011년부터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을 춘천으로 초청하여 수준 높은 공연으로 예술문화 도시 춘천의 문화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춘천의 이미지 향상과 예술문화관광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일시 7.27.(토) 20시 **문의** 251-8907
장소 KT&G 상상마당 춘천 야외공연장



갤러리 문 기획전시 <THE THINGS OF ETERNITY>

전시

타투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조명하고, 예술의 한 장르로서 타투가 가진 매력을 선보입니다. 각지에서 활동하는 타투이스트 10명의 독특한 스타일과 철학이 담긴 작품을 통해 타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으며, 어떤 의미로 행해지는지를 작품으로 보여줍니다.

* 참여작가: 타투이스트 10인
  (그리드, 누가, 라겸, 리리, 멜란지, 무아, 시월, 우위, 팥쥐, 헬벨)
* 기획자: 길창인

※ 공연이 있는 날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종료시까지 운영

일시 ~ 7.28.(일) **문의** 259-5837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2층 로비



이승호 개인전 <실경산수화전>

전시

평생을 삶의 터전에서 노심초사 아귀다툼 속에 노쇠해진 심신을 안고 퇴직한 지 5년여. 무언가 공허함이 가득 찬 가슴 속에 우연인지 필연인지 묵향이 채워져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혹여 누가 볼까 두려워 방문을 걸어 닫고 어설픈 흉내 붓질로 그렸던 졸작인데 무식이 용감이라고 개발새발 그린 그림을 펼쳐 놓아 보았다. (중략) 오늘도 보이는 것이 느낌으로 바뀌면 붓끝에 묵을 담아 화선지에 옮기는 즐거움에 빠져본다.

-작가노트 중-

일시 ~ 8.31.(토) **문의** 245-5133
장소 신사우도서관 2층

BOMNAE CULTURE



최성우, 한동국 2인전 <나른한 오후, 검은 차 한입 머금을 때>

전시

어느 이름 모를 나라에서 어느 이름 모를 사람이 태어났다면, 그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을 유영하는 바람도 그 사람의 숨결을 가져다 줄 순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또 그 사람과 같은 숨을 내쉴 때 우리의 존재는 비로소 증명됩니다. 여기 두 명의 작가도 마찬가지죠. 이번 기획전을 통해 이름 불린 두 작가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삶을 조명합니다. 한 명은 지나간 삶의 한순간에 초점을 두고, 다른 한 명은 죽음 직전의 순간을 연출합니다.

기간 7.2(화)~20(토)
문의 070-8095-3899 **장소** 개나리 미술관



김윤근 개인전 <춘천의 사계>

전시

삶의 감응을 그림과 조각작품으로 전시를 엽니다. 신성하고 독창적인 작품들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춘천에 살면서 그림일기 형식의 기록들을 단순화했습니다. 때론, 즉흥과 상상너머로 주파수를 던져 본성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자연 속의 새, 나비, 꽃, 둥지, 물, 산이 그림으로 표현되었고, 도조작품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춘천시민이 소제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파동과 무한한 찰라의 영적인 현상을 작품에 담고자 했습니다. 배웠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였고, 자유로운 나다움을 표출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이 아닌 처음 보는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낯설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일시 7.5.(금)~10.(수)
문의 010-3393-5946 **장소** 춘천미술관



지상만가展

전시

지상만가展은 '지하상가만 가~딴데가지마!'란 뜻으로 이번 전시는 다양한 시각예술 작가들로 구성된 미술과 사람들 회원들의 정기전으로 지하상가를 모티브로 한 전시입니다.

* 오픈행사 7.6 14시

일시 7.2.(화)~15.(월) **문의** 010-3436-3872
장소 갤러리 상상언더(지하상가 마-56호)

2024 상형전

전시

춘천관광문화권의 체험을 통한 이해가 상형전 회원들의 예술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강원예술인들과의 창작예술활동 교류를 희망하며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 오픈행사 7.12.(금) 17시

일시 7.12.(금)~17.(수)
문의 010-5450-9361 **장소** 춘천미술관

BOMNAE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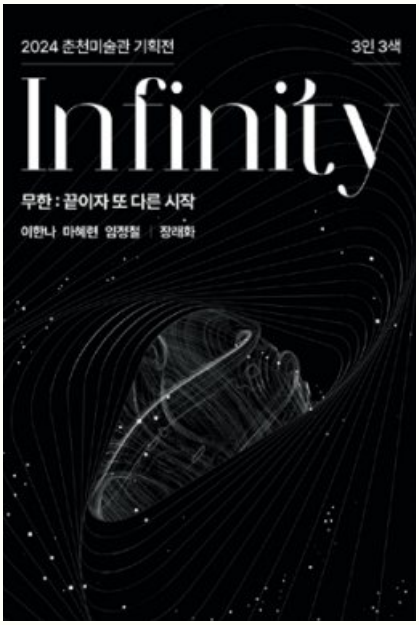


강원기독교 미술인협회 한국화 작품전

전시

수많은 꽃들이 서로 빛깔을 자랑하면서 꽃줄기 위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연 푸른 계절에 우리는 같은 꿈을 꾸며 저마다의 예술 혼을 펼쳐 6인의 한국화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을 작품에 담은 이 작은 잔치가 전시장을 찾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시 7.13.(토)~8.17.(토) **문의** 010-7575-2036
장소 아가갤러리(서면 당림리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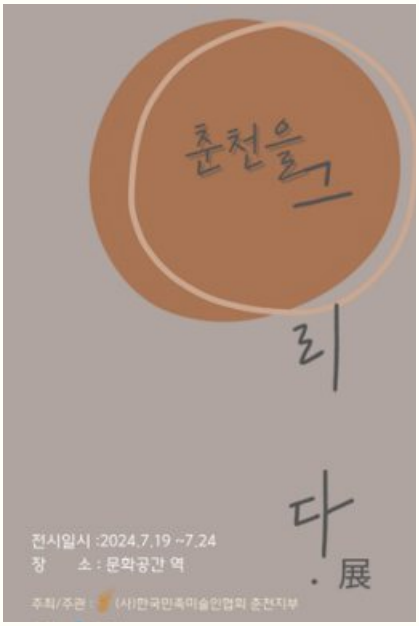
3人3色 <인피니티 Infinity>

전시

2024 춘천미술관 기획전시 3인3색 공모 당선작으로 이번 여름 무한한 시간 속, 나의 존재와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이 탐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7월 26일(금)에는 인하대학교 물리학과 권민정 박사님과 함께하는 Sci-Art Talk 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관람 부탁드립니다.

* 캡틴: 장래화
* 크루: 이한나, 마혜련, 임정철
* 탑승객: 인피니티를 여행하는 모든 이방인
* 아트 토크: 7.26(금)

일시 7.19.(금)~31.(수) **문의** 241-1856
장소 춘천미술관



문화공간 역 기획전 <춘천을 그리다>

전시

"춘천을 그리다" 전시는 춘천을 마음에 그리는 심상에서 시작하여, 개개인이 느끼는 춘천에 대한 이미지를 작가의 시각에서 또는 시민의 시각에서 드러내는 작업의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며,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춘천의 스틸 컷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바쁘게 변화되는 시대에 현 시점의 "춘천"을 화폭에 담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나 소소한 풍경들, 변화에 의해 사라져가는 모습들, 누군가의 마음속에 비치는 다양한 감성의 스펙트럼이 보여지는 이번 전시가 우리의 춘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간 7.19.(금)~24.(수) **문의** 252-0731
장소 문화공간 역(영서로 2260 남춘천역 1층)

BOMNAE CULTURE



그녀들, 작업+실 이효숙 전시

<그녀들, 작업+실> 세 번째 전시는 한국화가 이효숙의 작업실 이야기입니다. 이효숙은 일상에서 작고, 가깝고, 조용한 사물과 풍경을 마주할 때 스쳐가는 감각과 생각들을 무수한 연필 선으로 표현합니다. 오래된 할머니의 살림, 낡고 구멍 난 행주, 탁자 위에 긁힌 흔적 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와 그 지나온 시간의 의미를 잿빛 흑연으로 무심히 긋고 또 그으며 삶의 순간들을 채우며 비워내는 시간들이 축적된 작업실 풍경과 만나게 됩니다.

일시 7.23(화)~8.4(일) **문의** 261-5114
장소 갤러리 느린시간(서부대성로 446-2)



이은정 개인전 전시

<UNDEAD or NOTALIVE>

이은정 작가는 이른 사회생활에서 번아웃과 불안 증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마치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은' 듯한 상태로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불안심리를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좀비(ZOMBIE), '모즈비(MOZBIE)''로 시각화합니다. 모즈비는 인간이 자신의 내면과 외면에서 느끼는 불안의 원형이자 페르소나를 상징합니다. 모즈비를 통해 타자의 시선에 의해 생성된 페르소나와 그 안에 감춰진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 느껴지는 괴리감 그리고, 그에 따른 불안감을 다양한 매체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일시 7.23.(화)~8.4.(일)
문의 070-8095-3899 **장소** 개나리 미술관



김효주 개인전 전시

<어느 방랑자의 기도>

김효주 사진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이 한 해 중 가장 뜨거운 날에 시작됩니다. 발가벗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작가는 머리 위까지 다가온 태양 아래 살아있음과 동시에 죽음을 간접적으로 인지합니다. 땀과 눈물이 섞인 땅을 밟으며 떠오르는 단상들은, 작가 스스로 시간의 분해 과정이라 여기는 '사진'을 통해 가볍고 경쾌하게 증발해 버립니다. 날아가던 꽃씨가 길가의 무덤에서 잠시 꽃을 피우듯, 어느 방랑자가 되어 들러주세요.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여름이 될 것입니다.

일시 7.25.(목)~8.5.(월) **문의** 010-7234-6549
장소 아트스페이스사이로(동내면원창고개길166)

#봄내가 추천하는 책
에디터's PICK

쏟아지는 책들 속에 선택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깊이있는 책읽기, 봄내와 함께 해요.
에디터 **한수지**



초역 부처의 말

글 코이케 류노스케

25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회자되어 온 부처의 말을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이 현대어로 재해석해 책으로 출간했다. 간결하게 축약된 핵심만을 담은 부처의 메시지는, 마음이 약해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부처의 말이 간결하듯 이 책의 기획 의도 역시 매우 단순하다. 저자는 서문에 독자들이 이 책을 손에 들고 어디를 펼치더라도 그곳에 적힌 부처의 말이 스르륵 마음을 물들이고, 어느 순간 그 속에서 기분 좋은 바람이 일어나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썼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페이지를 넘기다보면 나를 얽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포레스트북스 **금액** 1만7천8백원



역사 앞에서

글 지창식

춘천 출신 지창식 작가가 수필집 '역사 앞에서'를 펴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 안에서 삶은 곧 역사가 된다. 그래서일까. 작가는 사실을 써야 하는 수필의 속성은 역사와 닮아 있다고 말한다. 역사적 사건을 곱씹으며 풀어낸 작품은 작가의 생애와 맞물려 또 하나의 역사가 된다. 삼국시대에서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수필집은 억겁의 시간을 거슬러 간다. 역사가가 아닌 수필가가 쓴 역사의 기록이 담긴 이 책은 '사료'적 가치와 함께 '문학적 상상'이 더해져 더 귀하게 느껴진다. 저자의 뛰어난 통찰력과 문화의식은 독자들에게 글 읽는 재미와 보람도 함께 전달한다.

출판사 시와소금 **금액** 1만5천원



주머니 인간

글 이현지

대학에서 미술과 철학 그리고 대학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한 이현지 작가가 첫 우화집 『주머니 인간』을 펴냈다. 작가는 서문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지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내 삶의 동반자로서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작가는 우화집의 시작부터 끝까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오래된 질문을 집요하게 묻고 있다. 삶이 흔들리고, 갈 곳을 잃어버린 기분이 든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우화집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통해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될 테니까.

출판사 달아실 **금액** 1만4천원



조은혜

올 초 아빠의 발령으로 인해 주말에만 아빠를 보는 우리 연년생 꼬맹이들. 엄마 힘들까봐 집안일도 척척 도와주는 예쁜이들. 고맙고 사랑해♡



김은진

태어난 지 80일 만에 처음으로 엄마 아빠와 나들이 나간 울 아들. 처음 보는 꽃과 나무들~ 앞으로 더 좋은 거 많이 보여줄게. 건강하게 자라줘. 사랑해 아들아



김순애

DMZ 평화의 길 통일전망대 코스를 남편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된 역사의 현장을 파도 소리 따라 걸었습니다.





정수진

둘째가 무럭무럭 자라 9개월이 되었네요. 동생은 누나와 눈 마주치면 웃고 누나는 가끔 질투하지만 동생을 잘 챙겨주고 귀여워해 줍니다. 매일 웃음과 행복을 주는 우리 아이들이 밝고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어정숙

동네에서 29년 만에 태어난 아기라는 우리 손자 하율아.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고 좋은 것만 보고 자라길 바란다.



이영경

우리집에 새로운 가족 햄톨이가 왔어요. 처음으로 새 가족을 맞이해보는 딸은 웃음을 멈출 수 없네요. 사랑이 가득한 우리가족입니다♡

(봄내+마슐랭)
봄슐랭 가이드

매달 춘천 구석구석을 테마별로 소개하는 춘천 가이드

춘천의 캠핑장에서 뜨거운 여름나기

#춘천캠핑 #여름나기 #시원해

글 한수지·한혜진 디자인·그림 슷카이

춘천숲자연휴양림



시원하게 펼쳐지는 숲속풍경에 환호성이 절로 나온다. 동산면 군자리에 위치한 춘천숲자연휴양림은 춘천시에서 조성한 유일한 공립 휴양림이다. 수만 그루의 자작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진 덕분에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를 맡으며 캠핑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개별 화장실을 겸비한 샤워실을 갖춘 보유한 보기 드문 캠핑장으로 캠퍼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하다.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예약경쟁률이 치열 해졌다. 매너타임은 11시로 여유있는 편.

강원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224-104
264-1156 @ccforest_camping





춘천 하늘 캠핑장





조용한 소규모 냇가 캠핑장을 찾는다면 서면 방동리에 위치한 하늘 캠핑장으로 떠나보자. 사이트 간 거리가 넓어서 호젓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캠핑장 바로 앞에 흐르는 시원한 계곡이 있어서 여름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냇가, 소나무숲 사이트 등 취향에 따라 머물 수 있다. 바비큐만 즐길 수 있는 당일 캠프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부지런한 캠지기 부부가 움직이는 덕분에 화장실, 개수대, 샤워실이 깨끗하게 관리된다. 이번 여름엔 장작 타는 소리와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반기는 방동리로 떠나보자.

강원 춘천시 서면 방동1길 315 010-8248-8266

춘천 늘솔길 캠핑장





춘천에 폐교를 리모델링한 캠핑장이 있다? 첩첩산중 품걸리에 위치한 늘솔길캠핑장은 품걸분교를 리모델링한 자연 친화적 힐링 캠핑장이다. 데크와 파쇄석 모두 사이트가 6m 이상으로 넓고 물소리, 새소리 뿐이라 온전히 산 속에서 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가리산 자락을 트레킹 할 수도 있고 근처 계곡에서 시원한 물놀이도 가능하다. 임시 숙소(교실 4개)도 있다고 하니 사전에 문의 후 이용해 보도록 하자.



동면 야시대로 1502 늘솔길 010 2925-2722



어반슬로우시티

북한강 인근 확 트인 2000평 잔디밭에 위치한 어반슬로우시티는 감성글램핑, 캠핑, 카라반, 수상레저를 동시에 즐길수 있는 곳이다. 패밀리 형태 텐트인 '빅돔'이 있어 대가족도 오케이. 텐트에 그래픽을 새겨 넣어 밤에는 불 빛에 네온을 보는듯한 느낌을 감상할 수 있다. 커플을 위한 컬러풀 미니멀 캠핑 장비도 갖추고 있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캠핑할 수 있다는 점도 독특하다. 요트, 바나나 보트, 카약, 웨이크 보드 등 수상레저도 운영중이다.

강원 춘천시 남면 가옹개길 108

0507-1472-8502

@urbanslowcity_official



춘천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박사마을에 위치한 어린이 글램핑장은 넓은 평지에 위치해 온 가족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이다. 글램핑 24동, 오토캠핑 10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램핑동은 일반형, 인디언형, 이글루형 3가지가 있어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캠핑장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잔디 광장이 있어 야외활동하기에도 좋고 파크골프장과 애니매이션박물관이 붙어있어 즐길거리도 풍부하다. 매달 전 달 15일 2시부터 온라인에서 예약할 수 있다. (예: 8월 예약은 7월 15일부터, 9월 예약은 8월 15일부터 가능). 올해 말까지 평일 이용객에 한해 2+1 행사도 진행해, 2동 대여 값으로 3동을 이용할 수 있다.



서면 박사로 770 240-1791







태권도의 도시, 춘천 대표 '춘천시청 여자태권도팀'

글 시민기자 **이재민**

춘천은 태권도와 연이 깊은 도시다.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춘천에서 개최되고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세계 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또한 서울에서 춘천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가히 춘천은 세계 태권도의 중심지라고 할 만하다. 여기에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춘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단'도 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혜리 선수, 국가대표 심재영 선수 등 걸출한 선수들이 소속되어있던 여성 실업팀이기도 하다. 이 팀에서 올해로 7년째 몸을 담고 있는 주장 문지수 선수를 만나, 춘천시청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작년 전국체육대회에서 금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두 개로 지자체 1위를 했어요. 올해 전국대회에서는 팀이 두 체급 이상 우승하는 게 목표입니다."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여 상위 입상이라는 결과로 춘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는 춘천시청팀은 1991년 창단된 잔뼈가 굵은 팀이다.

"전국시합이 얼마 남지 않아 2주 전부터 개인 시간 없이 팀이 단체로 운동에만 전념하고 있어요. 오전에는 호반체육관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개인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강원체고에서 고등학생들과 겨루기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실업연맹, 여성부, 대통령기, 협회장기, 국방부 등에서 열리는 대회를 1년 안에 거의 다 참가할 정도로 일정이 꽉 차 있는 춘천시청팀이다.

"뭐니 뭐니 해도 저희에게는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죠. 국가대표선발전에 가면 공기부터가 달라요. 다들 눈빛도 열정으로 불타고 있고."

체급별로 무조건 1명만 뽑는 국가대표선발전에서 문지수 선수는 2위, 3위를 하며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대기만성형 선수도 있잖아요. 그냥 매일 매일 꾸준히 땀을 흘리다 보면 좋은 결과도 자연스레 따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개인 시간 없이 매일 운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춘천시청팀은 6월 14일부터 전주로 내려가 해당 주말에 개최되는 전국대회를 맞이한다.





독도지킴이, 더퍼스트앤코 김진수 대표이사를 만나다

글 시민기자 **김두산**

드림콕을 아는가? 드림콕은 언뜻 보면 일반 배드민턴 콕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다. 배드민턴 콕 통에는 독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다. 게다가 그 수익금은 매달 100만원씩 문화유산회복재단에 기부가 되어 독도를 알리는 데 쓰인다. 문화유산회복재단에서는 독도가 표기된 외국의 고지도를 사 들이는 일을 한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외국에 빼앗겼던우리나라의 유물들을 찾아오고 그것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실감 교육을 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자긍심을 가지길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김진수 대표이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독도와 우리나라 역사에 진심인 걸까. 사실 그는 멸균우유,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일을 한다. 그가 대학생 시절 '우루과이 라운드'로 새로운 무역의 질서가 확립되어갔다. 농민의 자식이었던 그는 발 벗고 투쟁에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그가 하는 일은 우리 농민들에게 반하는 일이다. 멸균우유는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민들과 축산업자들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부채감을 가지고 있던 그는 어떤 방식이든 사회에 환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회사가 안정되어 가면서 그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독도를 위해 드림콕을 만들기에 이른다.

혹자는 오해하기도 한다.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굉장히 단단하고 올곧다. 드림콕으로 돈을 벌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계속해서 독도와 우리나라 문화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이어 가고자 한다. 지금은 배드민턴 콕과 독도 양말만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 확장된 방식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한편 그는 드림콕 커뮤니티(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다. 500여 명이 활동하는 이 밴드에서는 배드민턴하는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천명, 만 명의 회원을 모으는 게 그의 목표다. 기부금을 받아 활동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사람들이 이 일의 취지를 알게 되고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드림콕으로 독도지킴이 역할 톡톡히 하는 김진수 대표님!

도란도란

뉴시티 코아루의 행복나눔 텃밭

텃밭에서 이웃 사랑을 싹 틔우는 아파트

글 시민기자 **전영호**

춘천 시내를 거닐다 보면 아파트가 정말 많아졌다는 것을 느낀다. 아파트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살고 있는 가장 일반화된 거주 공간이 된지 오래다. 다만 이렇게 아파트 거주가 일상화되다 보니 옆집과의 정,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이웃의 얼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층간소음과 같은 이웃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의 골이 깊어져 극심한 다툼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한 활동을 통해 행복한 거주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아파트가 있어 눈길을 끈다. 사농동에 위치한 뉴시티 코아루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 안기헌)가 그 주인공.

이곳에서는 "행복나눔 텃밭"이라는 아파트 공동농장을 운영한다. 아파트 앞에 방치되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유휴농지 약 900평을 임대하여 109개의 텃밭을 만들었다. 흉물이던 공터가 한순간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대변신을 한 것이다.

5평 남짓한 텃밭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분양이 됐다. 주민들은 분양받은 텃밭에서 옥수수,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하여 직접 먹기도 하고 이웃 간 나누기도 한다.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텃밭을 가꾸면서 많은 대화를 이어 나간다. 작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곳에 이사 오게 된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까지 텃밭에서 자라는 고구마 줄기와도 같이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이웃 간의 정이 싹 트는 것이다. 특히 텃밭에서 아파트로 들어서는 입구에 있는 "텃밭 채소 나눔 바구니"는 이 아파트의 명물이다. 각자 텃밭에서 갓 수확한 채소를 담아 놓으면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특별한 무료 나눔 코너다. 이 텃밭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장 안기헌 씨는 "우리 아파트는 다른 곳과는 달리 주민들 간 화합이 너무 잘되고, 다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도 적은 편이다. 행복나눔 텃밭에서 자라는 행복 에너지가 아파트 전체에 퍼져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했다.



뉴시티 코아루의 행복나눔 텃밭, 행복을 나누는 주인들!

텃밭에서는 사시사철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4월에는 모종 심기 행사를 주민들과 함께하고, 6월에는 텃밭에서 재배된 채소, 과일들로 이웃들과 함께 가든파티를 연다. 처음에 행복나눔 텃밭을 방문했을 때는 밭에서 자라는 작물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지만, 취재를 마치고 나서 돌아올 때는 행복한 미소와 웃음을 짓는 주민들의 얼굴이 더 크게 보였다. 행복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 뉴시티 코아루의 행복나눔 텃밭, 올해도 풍년인 게 확실하다.



춘천토종씨앗도서관 김선옥 관장

우리 땅의 다양성을 위해!

글 시민기자 **이계림**

춘천토종씨앗도서관은 씨앗의 생물 다양성을 위해 활동하는 곳으로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토종 씨앗의 가치에 대해 알리고 있다. 토종씨앗은 기업에 로열티를 내야하는 씨앗이 아닌, 우리 땅에 토착화되어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씨앗이다.

거두리 춘천두레생협 안에 춘천토종씨앗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매장 한 켠 가득 300여 종의 씨앗들이 전시되어 있다. 신동면 증리, 동산면 삼포에서 수집한 춘천의 토종씨앗도 자리하고 있다. 2015년 2월 춘천토종씨앗모임이 결성되었고, 19명이 모여 토종 씨앗을 나누기 시작했다. 2017년 5월 도서관을 개관했고 토종씨앗 모종 나눔과 농사 방법, 씨앗 받는 법 등 정보를 활발히 알렸다.

"씨앗, 모종 나눔을 하고 농사법을 배우기도 하며 활성화가 되었으나 채종까지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고추, 상추 등을 따서 먹지만 채종까지 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씨앗 채취 목적으로 가꾸는 채종포를 운영해 보고자 했죠. 화천까지 가서 운영했는데 유지가 어려웠죠."

농사를 짓고 수익이 생기는 방법이 아니라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고, 단체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위축됐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김선옥 춘천토종씨앗도서관 관장은 올해부터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화천귀농학교와 연계하여 토종 씨앗에 관심있는 청년 농부들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홍천의 강원유기농 단체의 농부들과 소비자가 함께 하며 한 달에 한 번씩 씨앗도 직접 심고, 모종 내고, 하며 현장에 가서 농사법 배우고, 농기구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매달 한 번 모임을 갖고 있고 7월에는 양배추를 수확하러 갈 예정입니다."

김선옥 관장을 만난 6월 12일 커먼즈필드에서는 <느티나무 아래>라는 영화를 상영했다. 충북 괴산에서 토종씨앗을 심고 다시 씨를 받는 채종까지 고집스러운 일을 숭고한 마음으로 하는 안상희 농부와 청년 농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다. 영화에서는 사계절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평소 마트에서 보기 힘든 갓끈동부, 구억배추, 백가지, 도깨비박 등을 볼 수 있었다. 영화 상영 내내 젊은 청년 농부와 토종 씨앗의 가치를 아는 참가자들의 시선이 진지했다.

"토종은 맛있다거나 무조건 좋다는 생각은 잘못되었죠. 바나나 품종이 획일화되고 위기가 왔듯이 이런 현상은 다른 식물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생물 다양성 보존 측면에서 지켜내자는 것이죠. 가공식품의 원천은 1차 농산물이에요. 씨앗의 소중함은 농업의 소중함과도 같아요. 먹거리의 소중함은 우리의 생명과도 맞닿아 있는 거죠."

씨앗은 가능성을 안고 있다가 움튼다. 그러나 이렇게 지켜낸 씨앗을 심을 손 역시 부족해지고 있다. 농업인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 김선옥 관장은 농업을 경외롭다고 표현했다.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씨앗, 이를 피땀으로 길러내는 농부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춘천토종씨앗도서관에서 하는 활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관심 있는 청년들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도란도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우리 이야기, 시니어 극장

글 시민기자 **이종현**

춘천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전부터 많은 예술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연극, 인형극, 마임 등으로 지역 예술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는 춘천. 그래서일까 축제와 함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강원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이야기, 시니어 극장"이라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이곳에서 춘천 시민들은 자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연극을 매개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연극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인 이 프로그램에는 66세가 막내로 70대 중반부터 80대 초반의 시니어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현순(아트 손 컴퍼니 대표) 외 2명이 춘천공연예술연습공간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아내와 어머니로 바쁘게 살아온 시니어 참가자들. 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잊혀져 가는 자신들을 "우리 이야기, 시니어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연극을 배우면서 일상의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참여하기 전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담이었단다. 하지만 이제는 연극에 대하여 알아가면서 대사를 외우고 극중 인물로 변신하느라 모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극을 관람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8월 이후 자신들의 연극무대를 꿈꾸고 있다. 나이로 인하여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이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또 다른 일상을 색칠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김옥래(66세, 후평동) 씨는 "사람들이랑 함께 어울리며 위로 받기에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노년의 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을 엮어가는 15명의 시니어들. 문화예술을 경험함은 물론 자신들의 삶을 연극무대에 올리기 위해 휴일 늦은 시간까지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삶의 가치와 의미를
연극으로 발견해요!





춘천시

2024
춘천 호수드론
별빛마켓

2024. 07. 05. (금) ~ 07. 06. (토)

17:00~22:00 *드론쇼 21:00

(기상 악화시 일정 변경 가능)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 일원

(춘천시 중도동 357-39)

플리마켓 · 영화 상영 · 포토존 · 체험 · 공연 · 먹거리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주최 · 주관 | 춘천시 후원 | LEGOLAND KOREA RESORT, 경춘레일파크 Rail Park

문의 | 춘천시 관광정책과 T. 033-250-3072



최돈선의
둘레마을 이야기 19

최돈선 시인. 춘천시 둘레엔 1개 읍, 9개 면이 있다. 나는 그곳이 궁금하다. 그 고요한 곳에 현자는 있을 것이다. 당산목 같은 우직한 당신의 사람들이.

훈장 속의 품걸리를 찾아

글 **최돈선** 사진 **윤현**

이외수 작가가 작고한 지 2년이 되었다.
이외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주목받던 소설가였다. 그가 쓴 소설들은 섬세했고 감성적이었고 도발적이었다.
이외수가 1972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될 때, 그와 나는 한겨울을 자취방에서 보냈다. 나는 그에게 80매 분량의 원고지를 주었다. 여기다 써. 한 장이라도 버리면 안 돼. 네가 메꿔야 할 원고지 칸은 딱 그것뿐이거든. 그는 차가운 방바닥에 원고지를 놓고 엎드려 글을 썼다. 딱 파지 두 장이 나왔다. 나는 그가 쓴 공무원 글씨체 같은 원고를 읽었다. 제목은 <견습 어린이들>이라고 되어 있었다.

소설의 첫머리는 이랬다.

춥다.

그해 우리는 연탄불을 자주 피우지 못하고 살았다. 우리의 좁은 방은 당연히 냉골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그는 밤새워 글을 쓰면서 이를 갈았을 것이다.

이듬해 이외수와 나는 헤어졌다.
나는 교육대학에 자퇴서를 내고 전국을 쏘다녔다. 지독히도 추웠던 겨울날, 나는 강원도 탄광촌 골짜기를



배회하며 어머니를 외쳤다.

어머니가 메아리로 답해 주었다. 괜찮다 괜찮아. 그래서 나는 인제군 남면 시골로 돌아와 공무원이 되었다.
3년 후, 갑자기 이외수가 나를 찾아왔다. 그의 모습은 흡사 야귀 같았다. 머리는 산발한 채였고 비틀거릴 정도로 잔뜩 취해 있었다.
그가 불쑥 내민 '세대'란 이름의 월간지엔 중편소설 당선작 <훈장>이 무겁게 실려 있었다.
아직도 나는 기억한다. 나직하나 신음 같은 그의 목소리를.
-이 '훈장', 네게 맨 처음 달아주고 싶었어.
그리고 약간의 노기 어린 말투로 말하기도 했다.
-넌 나쁜 놈이야. 화가가 되고 싶은 나를, 주절이 이야기꾼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내 아버지의 별명은 미친개였다. 덕분에 내게 붙여진 별명은 미친 강아지였다.

이렇게 시작된 <훈장>은 세간의 관심을 들끓게 했다. 문학계는 경악했다. 이외수의 몽환적인 문체는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을 촉촉이 적셨다. 그리고 작품이 나오는 족족 그의 소설 들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그래서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선 이외수의 이야기가 주된 화젯거리였다.
그 후 이외수는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소설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그림도 그려 전시도 하고, 트위터의 황제가 되더니, 드라마 연속극의 주요 배우로 등장하기도 했다.
물론 소설 작품들은 출간되자마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곤 했다.

*

이제 나는 훈장 속 마을을 찾아 떠난다.
품걸리.
그곳에 가려면 소양댐에서 배를 타야 한다. 소설 <훈장>에선 80여 명이 탈 수 있는 큰 배였지만, 나는 12명만 탈 수 있는 쾌속선에 올랐다. 날은 쾌청했다. 옛날 배로 한 시간 사십 분이 소요된다고 소설엔 나와 있다. 여러 마을을 돌아 돌아 품걸리까지 닿는 시간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20분이면 충분하다. 직선으로 갈 뿐만 아니라 그만큼 배가 빠르기 때문이다.
줄거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주인공 원일은 품걸리로 가는 여객선을 타고 배 안에서 한 사내를 만난다. 그 사내가 앉은 곁에는 수국 한 다발이 놓여 있다. 원일은 사내와 종이컵으로 술을 나


품걸리로 향하는 쾌속선





품걸리는 유월의 꽃들로 가득차 있었다

누어 마시며 이야기한다. 사내의 이야기론, 폐를 앓던 아내가 작년에 죽어 품걸리 기슭에다 묻었다고 한다. 댐 건설이 완공되고 담수를 시작하자 물이 서서히 차올라 그만 아내의 무덤이 호수 속에 잠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의 아내는 수국을 매우 좋아했다. 사내는 수국 꽃잎을 뜯어 호수에 잠긴 아내의 무덤 어디쯤에다 뿌린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그러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실제로 이외수 작가는 수국을 유난히도 잘 그렸다.)

원일은 사내와 헤어져, 낚시하는 소년에게 품걸국민학교로 가는 길을 묻는다. 소년이 가리키는 쪽으로 마을이 보인다. 원일은 걸음을 옮긴다.

우리는 계곡에서 낚시꾼들이 버린 비닐을 수거하고 있는 할머니를 만났다. 커다란 폐비닐을 혼자서 수거하다니. 말을 건네자 할머니가 천진하게 미소 지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할머니의 고향이 소양댐 상류인 인제군 원통임을 알게 되었다. 아 그럼, 이외수도 나도 인제 사람인데….
알고 보니 할머니는 품걸초등학교 바로 옆에 사신다 했다.
할머니와 헤어져 우리는 포장된 길을 걸었다. 마을 집들은 깔끔했고, 유월의 꽃들이 눈부시게 피어 있었다. 붉은 장미, 황국, 양귀비꽃, 작약과 모란꽃들이 바람에 하늘거렸다. 집집마다 꽃밭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은 선량했고, 입가엔 미소가 가시지 않았다. 낯선 길손에게 모두 하나같이 친절했다.

마침 들깨 모종 일을 하고 있던 김호성 전 이장님을 만났다. 그는 동네 사람들과 모종판에다 상토를 채우고 있었다. 김호성 님은 춘천 봄내길을 개척한 분이다. 품걸리 오지마을길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우리는 이외수 소설 <훈장>의 무대인 품걸초등학교와 품안분교 길을 김호성 님에게 물었다.





낚시꾼들이 버린 비닐을 수거하는 할머니와 김호성 님


품걸리 마을길 모습

우린 옛 품걸초등학교를 떠나 시오랑 고개를 찾아 떠났다. 나로선 숙연하고 어쩌면 설레는 길이기도 했다. 이외수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품걸리에서 품안까지 무려 5시간이나 걸린다는 그 길을 밤새워 걸었을까.
밤길을 걷던 소설 속 원일, 아니 이외수는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오솔길이 아니라 산판길 같은 길을 걸었다고 소설엔 나와 있다. 그렇다면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한다. 나는 잠시 궁리해보았다. 여기서 길을 멈출 순 없다. 시월엔 소설 속의 길을 다시 걸어보자는 의욕이 나를 은근히 부추겼다.

나는 산과 싸웠다. 산의 고요와 싸웠다. 산짐승들의 울음과 등 뒤로 서리는 참혹함과 싸웠다.
두 개의 산을 넘어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길은 좀 평탄해져 있었다.
어디선가 밤새가 울었다. 어디선가 바람이 내게로 오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 <훈장> 부분

품걸초등학교는 폐교되어 없어졌고, 대신 그 자리에 품안마을 팬션이 들어섰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그것도 방치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했다.
"품안분교 가는 길은 시오랑 고개를 넘어야 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길이 사라져버렸지만."
김호성 님의 말을 뒤로 하고 우린 품안마을길로 접어들었다. 30여 분쯤 걸었을까. 정말 품안마을 표지석이 나타났다. 운동장은 잡초가 무성했고 오렌지빛 지붕의 하얀 건물은 고요했다. 고양이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았다. 햇살만이 투명하게 적막을 껴안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훈장>을 마음속으로 뒤적였다.
비록 <훈장>은 소설이지만, 소설 속 주인공(사실은 이외수 자신이다)이 간 길은 반드시 있으리라 확신했다. 이외수는 여기 품안리를 분명히 다녀간 적이 있었을 것이다. 8년 전인가, 이외수와 나는 느랏재 넘어 품안골이란 외진 곳에서 밤낚시를 한 적도 있었다.

9월이나 시월쯤 나는 이곳을 다시 찾을 것이다.
이외수의 길도 나의 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위)옛 품걸분교 모습과 현재 모습

김병현 지구별 여행자. 삶을 벗어나는 관광이 아닌 삶을 경험하는 여행을 지향합니다.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보다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떠납니다.





발리, 초록으로 그린 수묵화

글 **김병현** 그림 **임희영**

발리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발리는 인도네시아 수많은 섬 중 하나인데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친절한 사람들로 유명한 곳이다. 발리는 아름다운 해변, 서핑의 천국으로도 알려져있지만 내륙에는 열대우림과 논밭이 펼쳐져 있기도 하다. 나와 아내는 섬 중앙 우붓이라는 지역에 집을 구했다. 우붓은 시끄럽고 평화로운 마을이다. 좁은 도로에는 차와 오토바이가 질서 없이 뒤섞여 있다. 이들은 수시로 중앙선과 갓길을 넘나들며 추월한다. 신호나 횡단보도는 물론 인도가 없는 곳도 많아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조심히 걸어야 한다.

하지만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서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초록으로 그린 수묵화 같은 논밭이 드넓게 펼쳐지고 그 끝에는 야자수 숲이 보인다. 거기에는 계곡과 밀림이 있을 것이다. 산도 높은 건물도 없어 하늘은 광활하게 모습을 다 드러낸다. 한낮에는 하늘 높이 솟은 솜사탕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해가 뉘엿거릴 즈음에는 황금빛으로 세상이 물든다. 새와 박쥐가 춤추고, 풀벌레와 도마뱀이 울면 마침내 남반구의 별들이 총총 빛난다.

한 달 동안 논밭을 산책하고 책을 읽고, 글을 썼다. 매일 초록 들판과 노을을 보고, 빗소리를 들었다. 눈과 마음이 순해졌다. 아내와 주로 집에서 요리를 해먹었는데 단골이 된 야채 가게에서 배추와 생강, 마늘을 사고, 액젓을 구한 뒤 챙겨간 고춧가루로 김치를 담갔다. 여행의 질이 높아졌다.

발리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정하고 여유롭다. 미소 띤 얼굴로 먼저 인사를 건네준다.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면 특히 반가워하는 것 같다. 택시 기사들은 유쾌한 기운을 준다. "도로는 항상 막히지만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죠!" 넘치는 관광객이 성가실 법한데도 친절하다. 환대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시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다. 춘천의 여행자들을 조금 더 환대해야겠다 생각했다.

발리인 대부분은 힌두교를 믿어 크고 작은 사원이 정말 많다.









말레이시아에서 본 요란한 힌두 사원과 다르게 이곳은 짙은 먹색 돌로만 건축되었다. 단색이라 소박하면서도 섬세하고 화려하게 조각되었다. 힌두에는 십만이 넘는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동상 모습도 각양각색이다.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정갈히 입고 사원에서 기도를 올린다. 이들은 매일 차낭 사리를 만들어 집 앞과 거리에 두기도 한다.



야자수 잎을 손바닥 크기로 엮은 뒤 꽃과 과자 등을 올린 제물이 그것이다. 그들의 성품처럼 담박하다.

하루는 사원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을 따라 들어가 보았다. 경건한 분위기에 한쪽에서는 무언가 태우는 불길이 보인다. 눈 마주친 분께 조심스레 물었다.

"이건 무슨 의식인가요?"

"죽음 이후에 육신을 불태우는 의식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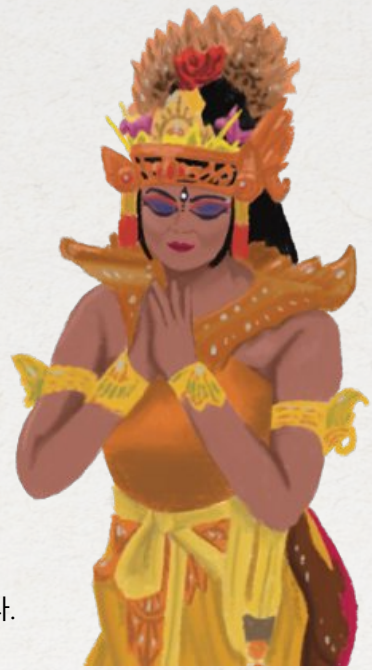
"장례식 같은 건가요?"

"맞아요. 돌아가시면 일단 매장해두었다가 돈을 모아 이렇게 화장(火葬)을 해요. 그 재는 바다에 가서 뿌립니다. 인간은 물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럼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은 누구의 장례식인가요?"

"우리 할머니예요.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길일이라는 건지, 슬프지 않은 날이라는 건지 헷갈렸지만 둘 다일 것 같았다. 이곳에서는 윤회를 믿고, 죽음이 곧 삶이라고 생각한다기에. 끝은 곧 시작이라는 믿음. 너는 내가 되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 낯선 여행자에게 귀한 것을 알려준 그에게 합장을 하고 나긋하게 말했다.

"뜨리마까시"

발리에서 가장 많이 쓴 말이 '뜨리마까시'(감사합니다)이다. '뜨리마'는 '받다'는 뜻이고, '까시'는 '주다'는 뜻인데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감사의 의미였다. 공손하게 '뜨리마까시'라고 말하면 '사마사마'하고 대답해준다. '나도 그래'라는 뜻이다. 공감과 교감의 언어다. 다정한 사람들과 마음을 주고받는 곳. 넘치는 초록과 교감하는 곳. 사람들의 생활이 분주하게 지나고, 매일 생명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신들의 섬 발리에서 다시 오지 않을 여행 시절을 보냈다.



의회소식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를 열고 조례안 9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보고안 3건,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건,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행정사무감사 1건, 출석요구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 결과는 8월호에 게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chuncheo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제출(발의)자	소관상임위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장	기획행정위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제도시위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경제도시위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각 상임위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복지환경위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안		각 상임위 예결특위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기 의원	경제도시위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노일 의원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유홍규 의원	
춘천시의회 전자투표에 대한 규칙안	김영배 의원	의회운영위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자 의원	복지환경위

제333회 정례회 개회사(전문)



의장 **김진호**

존경하는 30만 춘천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춘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초록이 가득한 6월 초여름의 문턱에서 제333회 정례회를 통하여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영원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애국의 마음을 지켜 오시는 보훈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가 있어, 의장으로써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시의 발전과 춘천시민의 행복!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바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같지만 각기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춘천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여 춘천시의 주요한 정책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
의 역할도 해야합니다. 이는 시민이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 마땅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의 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대표적인 계층구조의 관료제
조직입니다. 담당자는 어려움이 있으면 상급자와 상의를 하는 게 순서입니다. 담당자 위에 과장, 국장, 부시장 그리고 집행부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있습니다. 상급자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춘천시의 행정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현 상황의 원인은 충분하지 못한 소통에 있습니다.
시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피시어 빠른 시간 내에 의회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 된 사항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춘천시민에게 행복이라는 희망을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23 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한 여러 중요 안건이 예정되어 있어 어느 회기보다도
분주한 회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개발계획 재고 제안



의원 **남숙희**

캠프페이지는 도시기본계획 및 미군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지난해 9월 캠프페이지를 도시숲과 문화·첨단산업, 주거공간이 공존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춘천시는 지역사회, 시의회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및 국토부 공모에 신청하였고, 올해 5월 29일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정례회 때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했습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신청 기한은 6월 7일까지인데 공모신청을 며칠 앞두고 시민 공청회 개최와 의회 의견 청취를 촉박하게 하면 어떻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까?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시 다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①혁신 지구내 아파트 2500세대 과다 공급으로 과잉공급이 우려됩니다. ②3조에 가까운 개발자금 조달입니다. 다른 지자체 혁신지구 개발사업은 대부분 1조 미만이며, 국가시범지구로 지정을 받더라도 개발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3조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춘천시민의 몫이 됩니다. ③문화재 추가 발굴에 따른 사업 지연입니다. ④대규모 공동주택건립은 시민혜택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무엇이 진짜 시민을 위함인지 다시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개발계획을 재고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5.16(목)~5.17(금) 한국여성수련원(강릉)에서 전체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5.8(수)~5.10(금)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천년서고, 포항시 평생학습원을 방문해 도서관 시설을 견학하고 평생학습 우수 사례의 춘천시 적용 방안을 연구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희자)는 5.20(월)~5.22(수) 공주시 역사·문화시설, 국립세종수목원, 금강수목원 황토메타길 등을 둘러보고 정원 조성, 맨발걷기 사업 등 우수사례의 춘천시 접목 방안을 모색하였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운기)는 5.20(월)~5.21(화) 안동시의회, 안동 전통주 제조 시설, 전통시장, 월영교 등을 방문해 지역 전통주 지원 사업 현황 파악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경옥)는 6.3(월)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6.4(화)~6.20(목)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희자)는 6.4(화)~6.20(목)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였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운기)는 6.4(화)~6.20(목)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배)는 6.7(금)~6.10(월)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6.4(화) 서면 당림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 현장을 방문해 토지 매입 및 하수처리시설 신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봄내골 소식

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변옥철)는 4월 18일 반찬을 손수 만들어 독거노인 및 한부모 가족 80가구에 전달했다.

춘천은하수교회(목사 이호철)는 가정의 달을 맞아 동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라면 100박스를 기부했다.



후평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정임)는 5월 14일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 25가구에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소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영숙)는 5월 14일 홀몸노인 등 소외계층 37가구에 직접 만든 김치(35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순자)는 5월 14일 교동행정복지센터(동장 기준서)에서, 반찬을 만드는 "복(福)나누미 냉장고" 봉사를 펼쳤다.

소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영숙)는 5월 16일 저소득층 5가구에 휴지, 두유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석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형화)는 5월 17일 '뭐니 뭐니 해도 김치가 최고야!' 사업으로 관내 반찬 취약 30가구에 직접 담은 김치를 전달했다.

효자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금옥)는 5월 17일 관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40가구에 직접 만든 도시락을 전달했다.



소양동 자원봉사단(단장 이관선)은 5월 17일 홀몸노인 등 소외계층 17가구에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했다.

새마을문고 중앙회 춘천시지부(회장 이희순)는 5월 20일 후평주공6단지경로당(회장 정경화)에 '까롬'(손가락을 이용하여 즐기는 게임도구)를 기증했다.



효자1동 자율방범대(대장 인동문)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20일 기부금 200만원을 효자1동행정복지센터에 지정 기탁했다.



약사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진태)는 '찾아가는 이웃돌봄 반찬봉사' 와 보문각(중화요리식당 대표 김선미)에서 후원 받은 양곡을 취약계층 35가구에게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

신사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승규)는 5월 23일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 등 취약계층 20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누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덕사(주지 혜욱)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서면 지역 청소년 4명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퇴계동 자원봉사단(단장 유정선)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김치 등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봉사를 진행했다.



후평3동 주민자치회(회장 이효분)는 관내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정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행복나눔 요리고리』 행사를 진행했다.

신북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신림)은 5월 23일 반찬봉사와 신북읍 소재 심우정사(사무장 심은진)의 기탁 양곡 500kg(150만원 상당)을 관내 어려운 독거노인 40가구에 전달했다.



후평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종철)는 5월 27일 특화사업 '밥도둑, 사랑의 김치'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기운찬 반찬'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08가구에 김치와 반찬을 지원했다.

근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박근홍)는 6월 3일 춘천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온(溫)마을 돌봄 프로젝트'로 직접 만든 반찬을 근화동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했다.



하람건설산업(대표 정다운)은 6월 4일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신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경순)는 관내 소외계층 24가구에 반찬과 **티라미수**(대표 권강현)·**보광사**에서 후원한 빵, **전주장작불곰탕**(대표 이창훈)의 곰탕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보타사 관음손 봉사단(단장 차경익, 주지 진철스님)은 관내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42가구에 만든 반찬을 전달했다.

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송병재, 정순구)는 춘천시 기초푸드뱅크를 통해 기부받은 식품 28개 꾸러미를 결식 우려가 있는 마을별 취약 계층에 전달하고 안부를 묻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복지정책과 후원

영산불교 현지사는 재가지원서비스 "오지마을 반찬서비스" 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사)우리농업지키기 강원지역운동본부,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에서 춘천시 저소득계층을 위해 농산물꾸러미 200상자(쌀, 간편삼계탕 등, 1,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충만한사랑나눔재단, 메티카코리아에서 관내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유산균) 4,450상자(1억원 상당)를 전달했다.

봉사 및 행사

2024년 석사동 어린이운동회가 5월 11일, 석사동 주민자치회 주최로 춘천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어린이운동회로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한 행사이다.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영배)와 **춘천남부노인복지관**(관장 김소영)은 5월 16일 약사명동 마을복지계획단 주민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

봄내골 소식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읍장 홍미순)는 5월 20일 지내3리경로당(노인회장 조남원)에서 **춘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구강보건센터 및 소양강댐노인복지관**과 〈신북읍, 우리마을 봄봄봄〉을 진행했다.

살롱 드 제이플랜(점장 지준오)은 5월 21일 퇴계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우찬)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를 진행했다.



후평2동 주민자치회(회장 엄상필)는 5월 22일 주민자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평택시 신평동 주민자치회(회장 김기성)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

후평3동 주민자치회(회장 이효분)는 관내 1인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야외활동 및 레크레이션 행사를 진행하는 『방구석 벗어나기-동행』 사업을 추진했다.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영배)와 **춘천남부노인복지관**(관장 김소영)은 5월 23일 마을복지계획단 제빵 교육을 실시하여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소양동 주민자치회(회장 정락병)는 5월 25일 춘천칠층석탑 역사공원에서 주민주도 마을사업으로 사생대회 및 국악버스킹을 개최했다.

후평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연제철)는 **음식점 해마**(대표 성수호)의 후원을 받아 5월 29일 저소득 독거 어르신 14명에게 점심식사(7십만원 상당)를 제공했다.



신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경순)는 5월 29일 **신사모**(회장 김재익)가 후원하는 '신동면 어르신 생신잔치' 사업을 통해 홀몸어르신 등 17가구를 초청, 식사 및 선물을 제공했다.

신사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승규)는 6월 3일 관내 취약계층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홍선영)와 **춘천도시공사**(사장 홍영)는 5월 30일 동산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후평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정임)는 6월 5일 수집한 투명페트병을 제공해 자원순환활동을 실시하였다. 수익금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기금으로 운용된다.

조운동 마을복지계획단(단장 한범순)은 **남부노인복지관**과 협업하여 2024년 마을복지계획단 주민교육 및 제1차 워크숍으로 토마토 장아찌를 만들어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북춘천새마을금고는 ESG운영단 2기 발대식 후 소양강댐 하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일대 환경정화를 실시했다.



퇴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염현섭)는 6월 5일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쓰레기 정리, 화장실, 주방 정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춘천동부새마을금고(이사장박광선)는 지역상생의 날을 맞아 강원재활원에서 점심배식 및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간식을 전달했다.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강원선우회(회장 석범준)는 장애인복지시설인 늘해랑보호작업장에서 봉투접기 작업을 도와 주었다.

퇴계동 통장협의회(회장 이승은)는 퇴계동 어르신 800여명을 모시고 '제2회 퇴계동 효사랑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후평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정임)는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800장을 세탁, 춘천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불 세탁 봉사를 실시했다.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이사장 김건영)는 관내 16개 주민자치회와 1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2024년 춘천시 주민자치회 맞춤형 워크숍』을 진행했다.



석사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성숙)는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변영혜)과 마을복지계획단원을 위촉, 마을복지의제 탐색 워크숍을 진행했다.

퇴계동 통장협의회(회장 이승은)는 퇴계천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 가시박 제거 활동을 실시했다.

행복나눔 후원 릴레이 84호 사연 소개

박재준님에게 재활치료비, 간병비를 지원해주세요

박재준(가명, 만39세)님은 사생아로 태어나 부친의 존재를 모르며 모친도 유년 시절 연락두절돼 조모의 양육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조모의 사망으로 박재준 님은 뚜렷한 거처 없이 모텔에서 생활하며 건설 일용근로를 하며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고된 육체노동이 계속되며 피로가 축적되었던 박재준 님은 생활하던 모텔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인이 발견하여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식 없이 20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생사를 오갔지만, 다행히 현재 의식을 회복하여 일반병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치료 후 증후군으로 인지, 정신기능, 신체기능 장애가 발생하였고 재활치료 비용(의료비 250만원, 간병비 100만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사람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박재준(가명, 만39세)

모금기간: 2024. 7. 1.~ 7. 31.(1개월)

목표금액: 350만원(재활치료비 및 간병비)

모금계좌: 농협 203-01-548843/ 신한 100-035-191184

예금주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강원도지회

입금방법: 후원 OOO(후원자 성명)

후원문의: 시 복지정책과 ☎250-3098

※ 세제 혜택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244-166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 정보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안내

위치: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418
업무개시일: 6.17(월)　　**시설규모**: 지상3층
*지상1층: 민원실, 문서고, 외부창고,보건지소
*지상2층: 소회의실, 중대본부, 미화원실,지역공동페 활동공간
*지상3층: 대회의실, 주민자치실
문의: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245-5362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운영 안내(16번, 16-1번 노선)

시행일: 7. 1.(월) 부터
대상노선: 16번, 16-1번
(레고랜드 정문~남춘천역~삼악산호수케이블카~칠전대우A)
*세부노선은 춘천시 교통포털 www.chuncheon.go.kr/traffic 참조
이용방법: 버스 승차 시 교통카드 이용(현금 납부 불가)
카드 미소지자 계좌이체 요금납부
이용요금: 교통카드(일반 1550원, 중고등생 1210원, 어린이 700원)
현금 또는 계좌이체(일반 1700원, 중고등생 1360원, 어린이 850원)
※ 교통카드 이용시 요금 할인(150원) 및 환승 할인
(첫 하차태그 후 60분 이내 무제한 환승)
문의: 시 교통과 ☎250-3366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검사기간: 7. 1.(월) ~ 7. 19.(금)/토·일 제외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춘천시 공고문 참조
검사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검사대상: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문의: 시 경제정책과 ☎250-3420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신청 안내

신청자격: 소득요건에 충족하는 등록 장애인(자가/임차)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1인가구: 3,482,964원, 2인가구: 5,415,712원, 4인가구: 8,248,467원)
지원내용: 주택 내 맞춤형 편의시설·안전장치 등 설치
(가구당 380만원 한도)
※ 예시: 출입로(문턱제거, 문폭확대, 손잡이교체), 바닥(미끄럼방지), 비상연락장치, 동작감지센서등, 비디오폰, 좌식싱크대, 조명, 욕실개선, 재래식화장실 개조 등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주택소유자 동의서, 소득증빙서류 등)　**신청기간**: 3. 25. ~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 시 공동주택과 ☎250-4198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춘천시민
신청기간: 7. 5.~ 12. 31.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1회 50분 이상)
기타사항: 대상자별 증빙서류 필요, 중위소득별 본인부담금 차등 발생
문의: 보건소 방문보건과 ☎250-4568

2024년 춘천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참가대상: RFID 종량제 기기를 사용 중인 공동주택
*별도 신청 불요(자동참여)
※ 제외: ①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② 종량제 기기 사용 1년 이내 공동주택(2023. 6월 이후 종량기 설치 공동주택)
평가방법: 전년 동기간 대비 감량률 및 1인당 배출량 평가(환경공단 RFID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 배출자료 확인)
평가기간: 2024. 6. ~ 10.(5개월간)
선정 및 시상
- 세대수별 3개 그룹, 그룹별 3개소 선정(총 9개소 선정)
- 발표 및 시상: 2024. 12월 중
- 시상품: 종량제 및 재활용 봉투
문의: 시 자원순환과 ☎250-4741

도서관

춘천시립도서관 문화행사 안내

접수: 도서관 누리집 → 독서문화행사 → 문화행사 신청
문의: 245-5063, 5138

행사 프로그램:
노래로 배우는 영어(유아/7.6.(토), 7.20.(토)/10시~11시)
유아 놀이 체육(유아/7.7(일), 7.21.(일)/10시~11시)
동화놀이터(유아/7월 매주(월,화)/11시~12시)
인문학 강좌(라틴아메리카 시인들의 목소리)(성인/7월 매주(목)/19시~21시)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콘서트(남동윤 작가 초청 북콘서트)
(전연령/7.20.(토)/14시~15시)
초등1~2학년, 3~4학년 대상 도서관학교(1기)(7.29.~8.1./09시~12시) **도서관학교(2기)**(8.5.~8.8./09시~12시)**도서관학교(3기)**(8.12.~8.14./09시~12시)

모집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홈페이지: www.cchildcare.or.kr **문의** : 241-0756

프로그램 소개:
[부모프로그램] 육아쉼표(7월)
(관내 미취학 영유아의 부모 7.10.(수) 10:00~11:30 / 16명)
[부모프로그램] 클로버 부모교육-긍정의가족
(관내 미취학 영유아의 부모 7.12.(금) 10:00~14:30 / 10명)
[온라인 부모교육] 집에서도 놀(면서) 자(란다)
관내 미취학 영유아의 부모 7.20.(토) 10:00~12:00/80명)
[부모자녀 프로그램] 쑥쑥 신체놀이-튼튼체육
(18~21년생 자녀와 양육자 7.6.(토) 14:00~16:10 / 10명)
[부모자녀프로그램] 퐁퐁 오감놀이-스칸디오감
(6~28개월 자녀와 양육자 7.19.(금) 14:30~16:40 / 8명)

'미술과사람들'의 교육프로그램 <나도 화가다!> 2기 모집

교육기간: 7~9월까지 **장소**: 지하상가 상상언더그라운드 마-20호
접수: kitschman@naver.com 7.2.(화) 오후 6시까지 접수마감
* 자세한 내용은 cafe.naver.com/ccartspeople 확인
프로그램: 헹가래 유환석 만화교실(매주 목), 이청옥의 글씨 공작소(매주 금)

한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4 하계방학 과정(ZOOM)

신청방식: 네이버 폼 작성(QR코드 접속)
교육문의:한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48-1085

1. 반도체 직무과정(교육일정: 8. 5.(월) ~ 8. 9.(금)**)**
교육목적: 반도체 공정교육을 통한 취업 준비 역량 극대화
교육일정: 8. 5.(월) ~ 8. 9.(금)

프로그램 소개:
반도체분야 기업 및 직무분석(8.5(월) 10:00 ~ 12:00)
반도체 산업 트렌드(8.5(월) 13:00 ~ 16:00)
반도체 공정/설비(8.6(화) 13:00 ~ 16:00)
Diffusion & Implantation CMP / Clean(8.7(수) 13:00 ~ 16:00)
Mesurement & Inspection(8.8(목) 13:00 ~ 16:00)
반도체분야 입사지원서 특강(8.9(금) 10:00 ~ 12:00)
반도체분야 취업대비 그룹 컨설팅(8.9(금) 13:00 ~ 17:00)

2. 제약바이오 직무과정(교육일정: 8.26.(월) ~ 8.30.(금)**)**
교육목적: GMP 직무교육을 통한 취업 준비 역량 극대화

프로그램 소개:
제약바이오분야 기업 및 직무분석(8.26(월) 10:00 ~ 12:00)
제약 바이오HPLC 핵심 이론(8.26(월) 13:00 ~ 16:00)
GMP 과정(1)(8.27(화) 13:00 ~ 16:00)
GMP 과정(2)(8.28(수) 13:00 ~ 16:00)
GMP 과정(3)(8.29(목) 13:00 ~ 16:00)
제약바이오분야 입사지원서 특강(8.30(금) 10:00 ~ 12:00)
제약바이오분야 취업대비 그룹 컨설팅(직무 멘토링)(8.30(금) 13:00 ~ 17:00)

문화도시, 미술을 탐하다 시즌 2기 수강생 모집
<빛을 내는 나무, 나무 조명 만들기>

교육기간:7.26(금) ~7.31(수) **장소**: 춘천미술관 2F
대상: 초등4학년부터/일반인 (선착순 10명)
접수기간: 7. 2(화) ~ 7. 16(화)
수업일시: 7.26(금)/ 7.29(월)/ 7.30(화)/ 7.31(수) 10:30~12:30
접수방법: 춘천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참조 후 메일접수
메일 ccart1234@hanmail.net **홈페이지**: ccart.or.kr
문의: 춘천미술관 241-1856

모집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

모집기간: 수시모집(매월 20일 서류 접수 마감)
서비스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
서비스내용: 치료 동반서비스, 놀이활동, 외출지원, 양육보조 활동
지원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양성교육(이론+실습)
급여수준: 9,860원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법정수당 지급)
우대자격: 장애인활동지원사 180시간 이상 근로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교육시간 일부 감면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070-4454-6752/6753

춘천직업전문학교 컴퓨터 교육생 모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무료 교육:
- (수출입관리) 물류 수출입 무역사무원 양성과정(7.29.~12.19. 교육)
- 건축BIM설계(레빗.캐드.맥스.포토샵)(10.1.~25.2.26. 교육)
- UI/UX 웹(자바스크립트,리엑트), 개발자 양성(9.24.~25.2.19. 교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무료 교육: (HRD-Net 홈페이지 참고)
- 2D그래픽디자인(포토샵, 일러스트) 기초와 응용과정,
- ERP물류·생산정보관리사 - 유통관리사 - 물류관리사

일반훈련과정: - ITQ(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 컴퓨터활용능력2급 - 전산회계 1급/2급 - 전산세무2급 - AUTO CAD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만 75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일반과정은 아무나 가능)
신청: 전화, 방문(공지로 257, 2층)
문의: 춘천직업전문학교 ☎263-9979, 264-9979

<문화로 안녕을 묻는 도시 마음 산책> 1기 참여자 모집

모집대상: 마음 상태를 알아보고 맞춤형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추천받고 싶은 춘천시민 ※사회적 연결성 척도 사전·사후 검사 필수 참여
모집인원: 최대 96명 **모집기간**: 6. 24. ~ 7. 22.
진행일시: 7. 29. ~ 9. 6. **장소**: 춘천 내 커뮤니티 공간
※ 맞춤형 처방에 따른 프로그램 장소 개별 연락 예정
신청방법: '도시 마음 산책' 모두 홈페이지 또는
'문화도시춘천' 인스타그램 프로필 참고
문의: 춘천문화재단 ☎259- 5426

춘천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대상: 최근 6개월간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34세 청년, 지역특화 청년* 등(선착순)
(* 춘천시 거주 만 35~39세, 경력단절여성,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폐업 및 매출 저조 자영업 청년, 졸업 유예 및 장기휴학생 등)
신청제외: 6개월 이내 의무복무예정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 재학생 등
지원내용: 무료 맞춤교육 + 최대 300만원 지급!
교육: MBTI, 영어회화, 토익, 가죽공예, 일러스트레이터,
이력&면접 실습, 면접 스피치, 면접사진 촬영, 기업탐방 등
참여유형:
-도전(단기): 5주 이상, 40시간 이상 / 50만원
-도전+ 중기: 15주 이상, 120시간 이상 / 최대 170만원
-도전+ 장기: 25주 이상, 200시간 이상 /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litt.ly/hopereborn_cc (선착순 마감)
문의: 희망리본 춘천센터 ☎818-9288

춘천시와 한림성심대학교가 함께하는 <전문직업교육 7~8월 교육생 모집>

대상: 춘천시민(성인) **장소**: 한림성심대학교 및 기타(추후 공지)
신청: 홈페이지 hive.hsc.ac.kr
기타사항: 교육비 전액 국비지원(자격증 응시료 지원)
문의: 한림성심대학교 평생직업교육팀 240-9494, 9496

프로그램 소개:
- 7월 개강 : 시니어인지놀이지도사 / VR/AR전문가 / 티블랜딩전문가
- 8월 개강 : 드론기초과정 / 코딩지도사 / 생성형AI(챗GPT) /
아동건강안전지킴이

쓰담춘천(쓰레기 줍기 및 무단투기 방지 캠페인)

일시: 7. 6(토) 10:00~11:00(매월 첫째 주 토요일)
장소: 춘천시 중도동 357-35(막국수닭갈비 축제장)
대상: 춘천시민 누구나
준비물: 편한 옷과 신발, 개인 장갑(집게와 봉투 대여), 텀블러
기타: 1365 자원봉사 활동 인정
문의: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43-9800

7월 시민역사학교'히스토리아'

문의: (사)춘천의병마을 ☎263-8903 / 010-9287-8906

1. 역사강좌
일시: 7. 25.(목), 18:30
장소: 춘천시청 지하1층 다목적회의실
강의명: 한국 현대의 물질세계와 문화
강사: 전우용 (역사학자)

2. 현장답사-서울권
일정: 7. 16(화)
출발시간 및 장소: 07:30, 호반체육관
주요답사지: 효창공원(백범기념관 외),
국립중앙박물관(한글박물관),용산전쟁기념관
참가비: 3만원(식비,보험료 등 포함)

춘천시 주민자치대학 「주민자치의 이해 및 실무과정」 교육

교육기간: 7월 2 ~ 4주 간 * 세부일정 변동 가능
접수기간: 6월 3주부터 신청 링크를 통한 접수 예정
교육대상: 주민자치위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등
교육내용
① [기초교육] 주민자치 제도 및 역할 이해
② [리더십교육] 주민자치 위원 리더십 교육,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
③ [실무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주민자치 예산 회계 관리
교육장소: 춘천시평생학습관, 강원디자인진흥원 등
신청문의: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070-4177-6535
※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bommaji.co.kr 를 통해 안내 예정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4 부모교육 모집

강사: 김미영 센터장(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일정: 7.5.(금) 10:00~12:00,
장소: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층 집단상담실
대상: 미디어 과의존 피해 청소년 학부모
문의: ☎818-1388

사)의암학회 2024 의암 류인석 사적지 답사

일시: 7. 30(화) **출발장소 및 시간**: 호반체육관, 07:30
답사지
- 류인석선생이 의병을 결성한 영월 관풍헌, 자규루
- 충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창절사
- 류인석선생의 호좌의진을 기리는 을미의병창의비
- 한말 영월지역 후기의병을 기리는 주천 을사·정미의병 창의비
- 한말 전기의병장 김상태의병장 충절비
- 호좌의진의 중군장으로 활약한 윤기영의병장 공적비

모집인원: 30명 **참 가 비**: 10,000원
제공: 점심식사, 간식, 물
참가문의: ☎010-8795-5871 / 010-9287-8906

디지털 플랫폼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모집

교육내용: 온라인 플랫폼 이모티콘, 콘텐츠 제작, 유튜브,
챗 GPT 활용 마케팅 실무 등
취업코칭: 8.28.~ 8.30.
교육기간: 9.2.~11.19.(3개월, 52일 총205시간) 09:00~13:00
모집기간: ~ 8.23.
문의: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243-6474 / 070-4048-6960

춘천시 자전거일상 챌린지

기간: 6월 ~ 11월
참여방법
1. 구글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라이트브라더스 앱 다운로드
2. 회원가입
3. 로그인 후 라이트브라더스 앱 실
- 주행시작을 누른후 자전거 타기 - 주행이 끝나면 주행 종료를 누르기
- 포인트 적립을 설문 페이지로 이동

참여대상: 만 14세이상 춘천시민 누구나(비플제로페이 사용연령기준)
혜택: 춘천사랑상품권 1만원권
(춘천사랑상품권 지급기준: 매월 250명, 일상챌린지 20회 이상 &
주행거리 30km이상 달성자 순 (동일횟수 시 주행거리 우선적용)
문의: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43-9800

모집

춘천시민 자전거대행진 '크리티컬매스'

일시: 7. 6(토) 14:00~16:00 **장소**: 춘천시청 광장
대상: 춘천시민 누구나
행진코스:
시청2시 출발~중앙로사거리~보건소~공지천사거리~남부시장 ~운교사거리~팔호광장~강원대민주광장~커먼스필드~스무숲사거리~남춘천역~온의사거리~공지천사거리~조각공원
문의: 두바퀴로가는세상 사회적협동조합 ☎243-9800

실버케어전문가 양성과정 모집

교육내용: 노인의 이해,치매관리활동,인권교육,학대예방전문교육등
교육대상: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취업코칭: 9. 4.~ 9. 6. **모집기간**: ~8.30.
교육기간: 9. 9.~11.11.(2개월, 41일, 총164시간) 09:30~13:30
문의: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243-6474, 070-4048-6958

생활 정보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업 홍보

h·well 국민건강보험 춘천지사

문의: 국민건강보험 춘천지사 ☎250-9891~2

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2024.5.20.부터 시행
- (목적)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내용) 병원 진료 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제출

※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2.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실시 2024.7.1.부터 시행
- (개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총액의 100분의 90을 본인이 부담 (본인부담률90%)
- (적용 제외대상)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그 외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추후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예정)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안내

금융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정책서민금융 통합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이나 소득이 낮아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사회초년생, 최저신용자 등 다양한 분들을 위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예약 후 가까운 (춘천, 원주, 강릉, 속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받으세요.

행사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10주년 행사 <강시미의 10살 생일파티에 놀러와~>

일시: 7.6.(토) 13: 00~16:00
대상: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능
장소: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서면 박사로 882)
사전신청: 시간대별 선착순 신청(QR코드)
* 당일 잔여인원에 한해 현장참여 가능
문의: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240-2312

이달의 자원순환 실천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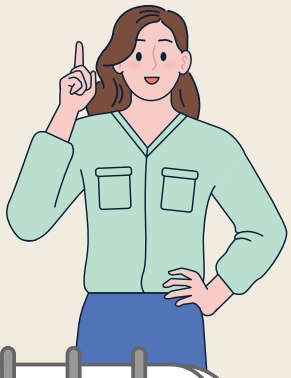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

부패·공익 신고 안내



부패·공익침해 행위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로
'청렴 1등 도시 춘천'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신고대상 부패·공익침해 행위

부패행위란? <부패방지권익위법>

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 도모
②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 시 법령 위반으로 공공기관 재산 손해
③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기타 법령 위반 행위

①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금품 수수 등
②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 복지급여 등 허위·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③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부패·공익 신고 방법

(인 터 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②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③ 춘천시 감사담당관

(문의·상담) ①1398 또는 110(국민권익위원회)
② 033-250-3853(춘천시 감사담당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춘천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세상

독자와 함께

아내에게 점수 딴 미식여행

춘천에서 떠나는 세계미식여행 기사 덕분에 신났습니다. TV에서 외국여행 먹방을 보며 부러워하던 저를 미식의 나라로 안내해주었으니까요. 대만 식당에 가서 톡 터지는 육즙도 느꼈네요. 아내에게 점수 톡톡히 따게 해 준 봄내소식지의 알찬 정보, 대박입니다. - 남 상 민



손흥민 벽화를 그린 한해동 화가 최고!

와우! 일단 감탄사가 나옵니다. 춘천 출신 화가 한해동 씨의 그림 실력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림이 진정 예술이네요.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이런 명성을 구축한 춘천의 젊은이, 당신은 진정한 춘천의 자랑입니다. 한해동 화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이 기 현

봄내의 싱그럽고 아름다운 청년들

출퇴근길 항상 지나는 팔호광장에 언제부턴가 명물이 들어서있어 어떤 작가의 작품인지 궁금했다. 올해 아들이 부안초에 입학했는데 항상 벽화를 보며 이야기해주곤 했다. "너희 학교 선배님이야.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란다" 자랑스러운 손흥민, 멋진 아티스트 한해동! 봄내에는 봄처럼 싱그럽고 아름다운 청년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이 승 훈



지하상가 '돈카돈카' 사장 인터뷰 읽고

얼마 전 여권 사진을 찍으러 지하상가에 들렀다가 연세가 지긋하신 사장님들이 부지런하게 오픈 준비하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저도 음식 장사 9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20년 이상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삭힌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짐작해보며 뭉클했네요. 게으름 없이 일하는 소상공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춘천의 소상공인 사장님들, 화이팅입니다! - 박 은 혜

사춘기 딸에게 추천하고싶은 템플스테이

디지털 단식이 꼭 필요한 사춘기 딸에게 추천하고 싶은 템플스테이. 정보가 많지 않아 궁금했는데, 청평사와 삼운사 소개 기사가 알차고 유용했다. 생생한 체험기를 재미있게 읽었다.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정보제공에 감사드린다. - 김 예 승

봄내를 통해 춘천이 더 친근해졌어요

올 여름에 가족여행지로 춘천에 갈 예정인데 마침 봄내에 세계미식여행 지도가 실렸네요. 엘페스에서 타코와 퀘사디아를 포장해 손흥민 벽화를 보러 가려구요. 맛집과 볼거리까지 챙겨주는 봄내가 정말 최고네요! - 신 규 철

온통 초록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숲체원

국립춘천숲체원은 저의 주말 산책길인데요. 한적하게 여유있는 숲길을 거닐고 싶다면 들러보세요. 춘천에 이렇게 아름다운 숲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계곡을 품고 있어서 더 예뻐요. 기사를 보고 방문객이 너무 많아질까봐 살짝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숲체원 최고에요! - 윤 혜 영



401호 '청백리' 삼행시 당첨작

청산(靑山)이 사방을 둘러싸고
백의 민족 28만이 도란도란 살아가는
리(이) 곳은 봄내 춘천입니다.
- 류 혜 진

청춘의 여름도
백발의 여름도
리듬에 맞춰 신나게~ - 조 유 진

청춘을 저당잡히고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면서도
백번이고 천번이고 청백리를 되뇌이고
되뇌이면서 살아온 공직생활 40년 세월
리(이)제는 자유로운 영혼되어 거침없이
자연인으로 돌아가리 - 서 경 애

401호 독자 삼행시 당첨자

강문호, 류혜진, 문석기, 박금숙, 박상현, 박유경, 서경애, 서무송, 유수동, 이선자, 이주연, 정태복, 조호자, 전성규, 조유진, 지명숙, 지미라, 채강석, 최우영, 최종길, 함가빈

다음 독자 삼행시 주제는
반다비 입니다.

이달의 춘천시 통계 (2024.5월 말 기준)

- **인구** 291,496명(+164)
- **가구** 136,911세대(+129)
- **출생아** 94명
- **65세 이상** 59,847명(+227)
- **자동차** 150,420대(+40)

CARTOON BOMNAE

만화로 보는 봄내 강원애니고등학교 학생들이 춘천을 주제로 자유롭게 그리는 코너입니다.

2학년 윤하민



독자 참여

원고와 사진을 **매달 10일까지** 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원고료를 드립니다. 지면 관계상 원고 내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편 24264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소통담당관
이메일 bomnae1993@gmail.com

- **봄내소식지 참여 안내**
  삼행시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1만원 이름, 핸드폰 번호(본인 명의) 반드시 기재
  독자와함께, 봄내한컷 3만원, **우리가족 이야기** 5만원
  이름,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도로명주소 반드시 기재
- **봄내홈페이지**(bomnae.chuncheon.go.kr) **이벤트 안내**
  봄내퀴즈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5천원(정답자 중 100명 추첨)

강원·춘천 2024
세계태권도문화축제

Gangwon Chuncheon 2024
World Taekwondo Cultural Festival

24. 7. 1.MON – 7. 7.SUN

2024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Chuncheon Korea Open
Inter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24. 7. 10.WED – 7. 14.SUN



장소

송암 스포츠타운 에어돔

WORLD TAEKWONDO · ATU THE ASIAN TAEKWONDO UNION · 대한태권도협회 KTA · 강원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GANGWONDO TAEKWONDO ASSOCIATION · 춘천시태권도협회 CHUNCHEON CITY TAEKWONDO ASSOCIATION

문화체육관광부 · 외교부 · 대한체육회 · 강원특별자치도 · City of ChunCheon ·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 Chuncheon Leisure Taekwondo Organizing Committee